

## 공학교육인증제 시범대학 선정

### 교육프로그램 심사후 인증결정...공학분야 특성화 기대

본교 공학분야가 한국공학교육  
인증원에서 실시하는 공학교육인  
증제의 시범실시대학으로 선정됐  
다.

공학교육인증제는 각 대학의  
공학교육프로그램을 심사하여 공  
학교육의 특정한 기반을 확립하  
고 국제적인 경쟁력과 실력을 고  
루 갖춘 공학기술인력을 양성하  
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한국 교육제도에 '인증'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는 데 또다른 의의가 있다. 만일  
각 전공의 공학교육프로그램이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은 동시에  
전공분야 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자  
질을 증명해 주는 역할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교 전자공학과, 전기학  
과, 건축학과를 비롯한 9개학과는  
공학교육인증원에 제출한 각 전공  
의 교육프로그램을 내년 5월까지  
운영한 후 공학교육인증원의 평가  
에 따라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본교는 이미 작년 3월부터 2년  
여에 걸쳐 공학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표준  
교과과정을 시행하면서 전공교육  
에 설계과목을 30%로 하고 기초  
적인 수학, 과학, 전산학에 대한  
BSM교과목을 개발하는 등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공학법제,

공학경제, 기술과 사회 등의 독자  
적인 교양과목을 신설하기도 했  
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프로  
그램의 교육목적 △학생의 학습  
성과와 평가 △교수진 △시설 및  
재원 등을 기준으로 본교에서 제  
출한 자체보고서를 평가한 후, 내  
년에는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5월  
말에 통보되며, 인증을 받은 공학  
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 6년간 유  
효하다.

이와 관련해 김병식 공과대학장은  
"공학교육인증은 본교의 공학  
분야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도 공학교육프로그램  
이 인증을 받으면 해당 교육 프로  
그램을 수확한 졸업생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학교육인증 여부를 평  
가하는 사람들이 공학교육전문학  
회 대표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출한 자체보고서를 평가한 후, 내  
년에는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5월  
말에 통보되며, 인증을 받은 공학  
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 6년간 유  
효하다.

이와 관련해 김병식 공과대학장은  
"공학교육인증은 본교의 공학  
분야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선 기자  
last-greetings@hanmail.net

##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 경행 신명현군 3개학위 취득 소설가 황석영씨 명예졸업장 수여

99학년도 서울캠 후기 학위수  
여식이 25일 오전 10시 30분 중강  
당에서 열렸다.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은  
△박사 75명 △석사 163명 △불교  
대학원 석사 8명 △행정대학원  
석사 70명 △경영대학원 석사 35  
명 △교육대학원 석사 86명 △언  
문정보대학원 석사 14명 △산업  
기술환경대학원 석사 27명 △문  
화예술대학원 석사 11명 △국제  
정보대학원 석사 6명 △지역개발  
대학원 석사 11명 △학사 421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어둠의 자식들', '오래된 정원'  
등을 발표하며 활발한 문단활동

을 하고 있는 소설가 황석영(57  
세)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  
다. 황씨는 1970년 본교 철학과 3  
학년 재학중 중퇴했으며, 그간 실  
전적인 문단활동을 한 공로로 30  
년만에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또한 경찰행정학과 신명현(94  
학번)군은 행정·회계·이화 등 3  
개 학위를 3.58점의 우수한 성적  
으로 취득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  
행정학과 회계학, 물리학을 복수  
전공한 신군은 "아직까지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 않았으나 그 동안  
다양한 학과목을 선택하여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싶  
다"며 졸업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  
학원 후기학위수여식은 오는 30  
일 진행될 예정이다.

### 지면안내

2000년 통일대축전 4·5면



지난 8월15일 한양대  
에서 열린 2000년 통  
일대축전의 이모저  
모를 취재했다.

후기학위수여식명단 6·7면

신규교수프로필 8면

캠퍼스공연장 진단 11면



### 무엇이 더 급한가

윤정광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부처님이 바라나시를 떠나 마가다로 가시던  
중 하루는 숲 속의 나무 아래 앉게 됐다. 이  
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숲 속 여기저기를 돌  
아다니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곧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부처님을 발견하고  
부처님께 물었다.

"한 여자가 도망가는 것을 혹시 보지 못했습  
니까?"

젊은이들은 삼십 명이 저마다 아내를 데리고  
이유를 내놨는데, 그중 한 젊은이는 독신자라  
기생을 데리고 왔었다. 그런데 다들 노는데 정  
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그 기녀가 여러 사람들  
의 옷과 값진 물건들을 훔쳐 달아나 버린 것이  
었다. 사정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그들  
에게 물었다.

"젊은이들이여, 도망친 여자를 찾는 것과 자  
기 자신을 찾는 것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중  
요한가?"

노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던 젊은이들은 그제  
서야 제 정신으로 돌아와 부처님께 공손하게  
대답했다.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들 거기 앉거라. 내 그대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하여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복하여 그 자리에서 출가하게  
되었다.

대학은 이제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였다.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인격을 도  
야하여 장차 이 나라의栋梁"...운운하던 옛날  
식 대학생의 사명과 분분 같은 것은 세월이 먹  
히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  
늘의 나에게 과연 어떤 일이 가장 급한 일인가,  
스스로에게 한번쯤 물어보아야 한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낭만을 즐기는 일이 더 시급한가?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 것  
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확고한 목표를 향해 나  
아가는 것이 더 급한가? 오늘 내가 해야할 일  
은 과연 무엇이 가장 시급한가?

### 양캠직원노조위원장 선출

제9대 직원노조 위원장으로 김  
정대(행정대학원 교학부) 조합원  
이 선출됐다.

지난 6월 20일에 열린 제9대  
정·부위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정대, 김명만·최일우 조와 기  
호 2번 장운, 박민규·김홍중 조  
의 경선으로 재직 208명 중 164명  
이 투표한 결과 득표율 62.8%로  
노조위원장에 김정대, 부위원장  
김명만(사무처 총무과)·최일우  
(중앙도서관) 조가 당선되었다.

한편, 경주는 지난 6월 22일 치  
러진 선거에서 총 유권자 128명  
 가운데 98명이 투표한 결과 득표  
율 87%로 단독후보한 이진형  
(학생복지실), 이상률(총무팀)·  
류인수(인사관리팀)조가 반대 12  
표(12%), 무효 1표(1%)로 당선됐  
다.

### 대학원 정원 일부조정

2001학년도 본교 대학원 정원  
이 일부 조정됐다.

조정된 대학원 정원을 보면, 서  
울캠 일반대학원은 20명의 정원이  
감소했으며, 문화예술대학원은 10  
명의 정원이 증가했다.

경주캠 지역개발대학원은 명칭  
이 사회과학대학원으로 바뀌면서  
10명의 정원이 증가했다.

한편, 영상정보통신대학원과 불  
교문화대학원이 신설되며 정원은  
각각 50명과 20명이다.



지난 23일 양명 한학콘도에서 서울캠 학사보고회와 전체교수회의가 열렸다.

## 200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 오는 30일부터 장기취업자 재외국민 대상

교무처(처장=신재호·전자공  
학) 학생선발실은 오는 30일부터  
장기취업자와 재외국민을 대상으  
로 2001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수시모집은 장기취업자  
 가운데 총 96명을 야간개설 모집  
단위에 한해 선발하며, 외국영주  
자나 외국근무자의 교포자녀를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2%  
를 선발한다.

단, 재외국민 수시모집에는 신  
입생과 동일한 지원자격을 갖춘 2,  
3학년 1학기 편입생도 포함된다.  
한편, 경주캠은 오는 9월부터

장기 취업자(23명)와 이번 해에  
신설된 만학도 및 주부(20명) 수  
시 모집이 시행될 예정이다.

### 김홍철·원유한교수 퇴임 2학기 신규교수 24명

지난 18일 생명자원대 생명자원  
산업융합학과 김홍철 교수와 사  
범대 역사교육학과 원유한 교  
수가 정년을 맞아 퇴임하였다.

한편, 지난 16일 이사회를 거쳐  
서울캠 8명, 경주캠 16명으로 총  
24명의 신규 교원이 임용되었다.  
▶관련기사 9면

## 2학기 전체교수회의 열려

### 교수회장에 심익섭 교수 재선출

'2000학년도 2학기 전체교수회  
의 및 대학별 워크샵'이 지난 23,  
2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본교 전임교원 및 중앙부서  
실·팀장, 각 대학 교학과장이 참  
석한 본 회의는 △일산 병원 건립  
공사 현장 시찰 △지난 학기 학사  
업무보고 △경영대·공대 교육개혁  
사례 발표 △교수회 총회 △대학별  
교수 워크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영대와 공대의 교육개  
혁사례발표는 대학별 워크샵으로  
이어져 빠른 시일내에 △교수 강  
의책임시간을 9시간에서 6시간으

### 대폭 직원인사 이동

본교는 지난 8월 3일자로 실·팀  
장급을 비롯한 총 49명의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실·팀장급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은 △교무처 학사지원실  
장=하정은 △기획인사처 인사관리  
팀장=오광진 △학생처 취업지원팀  
장=신봉근 △사무처 총무팀장=황  
주환 △사무처 시설관리팀장=이현  
중 △사무처 구매팀장=손재영 △  
가상대학 교학과장=차선구 등이다.

한편, 경주캠은 △교무처 학사지  
원실장=송부자 △학생처 학생복지  
실장=서병수 △지역개발대학원 교  
학부장=김용기 △기획처 인사관리  
팀장=안준옥 △기획처 대외협력팀  
장=이철우 △학생처 취업지원팀장  
=나병욱 △사무처 재무회계팀장=  
김상운 △의과대학 교학과장=박  
동수 △야간강좌 교학과 교학과장  
=이우용 △의료원 기획관리실 인  
사과장=주재권 등이다.

## 경주한방병원 확장이전

### 활발한 의료활동 기대

경주 한방병원(원장=이대균·  
부인과)이 지난 14일 경주시 용  
강동에 위치한 구 구암재단 경주  
병원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  
층의 규모로 첨단 의료 장비 등  
을 비롯한 우수한 의료시설을 구  
축했다.

또한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의  
2개 양방과를 개설해 양방병원과  
의 신속한 연계를 가능하게 했으  
며 각종 진료를 한양방 협진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 동대신문이 9월 4일부터 새로워집니다



독자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에 힘입어 동대신문이  
지령 1300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시대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민감각으로 여러분께 보답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선 위주의 딱딱하고 경직된 편집을 부드럽  
게 바꾸었습니다.  
둘, 효과적인 정보전달과 알찬 내용을 위해 면체  
계를 재구성했습니다. 12면일 경우 여러면을 증면  
하여 10면과 11면으로 구성하였고, 5면은 학술면으  
로, 그리고 12면은 생활면으로 재단장했습니다. 앞  
으로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 부  
탁드립니다.

### 동대신문사

## 발전기금 ARS 7000-119

### 본사사령

- ◇ 임 차장
  - ▲대학부 1차장=박지영(이과대 자연과학부2)
  - ▲대학부 2차장=최창호(자연대 수교2)
  - ▲대학부 3차장=김은선(이과대 자연과학부2)
  - ▲사회부 1차장=김윤미(사과대 복한2)
  - ▲사회부 2차장=박현호(인문대 국어국문학부2)
  - ▲문화부 1차장=표은영(사과대 복한2)
  - ▲문화부 2차장=김지혜(상경대 관광경영학부2)
  - ▲기획부 차장=김현중(공과대 전기전자공학부2)
  - ▲학술부 차장=정미혜(인문대 국어국문학부2)
  - ▲생활·여러부 차장=이소라(상경대 관광경영학부2)
- ◇의원면직
  - ▲양경인(불교대 불교3)

학사안내

중도 4일부터 정상운영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이 오는 9월 4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따라서 중앙도서관 2층 과제 도서실과, 3층 참고도서실은 다음달 2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장학생 미션출 관계로 정상운영이 미뤄졌다"며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주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학자금 융자 신청접수

학생복지실(실장=선상규)은 2000학년도 2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재학생인 학부 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각 대학 교학과 또는 학과 사무실에 신청하여 추천서를 배부 받은 후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은행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등록금 납입금 범위에 한하여 국민은행, 주택은행, 하나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여학생실 체관장학생 모집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2000학년도 2학기 체관장학생'을 모집한다.

본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여학생실에서 신청서를 배부, 28일부터 양일에 걸쳐 접수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와 함께 성적증명서 1부와 구체적인 자원봉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체관장학생으로 선발된 10명에게는 각각 7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며 일정기간의 학내 봉사 활동이 의무로 주어진다.

특강안내

취업지원팀 전자상거래 특강

취업지원팀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본관 중앙당에서 전자 상거래 기술관리사 시험과 인력 수요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전자 상거래 산업현황과 전망 △전자상거래 기술인력 활동분야와 역할 △국내 전자 상거래 관련 자격시험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며 특히, 오는 9월 전자상거래 1차 자격시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하계방학 학내공사 마무리

학내 곳곳에 개보수 공사가 실시됐다.

또한 휴게실 옆에 있던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던 동국관 M동 5층 강의실과 I동 2층의 경영대 학생회실이 위치를 맞바꾸었다.

또한 학생회관을 비롯한 원흥관과 명진관의 일부 화장실, 중앙도서관 여학생휴게실, 계산관 여학생실을 개보수했다.

그리고 명진관 외벽과 학생회관, 계산관 옥상에는 방수작업을 실시했다.

그 밖에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간 해화별관이 완공되어 현재 검수중이고, 준공식 후에 전산원에서 2, 3층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해화관 현관의 천장과 도어설치, 도색작업이 구조보강 작업때문에 완공이 예상보다 늦어져 현재 작업중이다.

어학실습 멀티미디어실 개관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문과)은 오늘 '어학실습 멀티미디어실'을 개관한다.

기준에 동국관에 위치했던 어학실습실에 비해 해화관 1층으로 이전된 어학실습실은 다량의 컴퓨터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위성TV, CNN, STAR, NHK 등 각종 영어방송과 비디오, 오디오, CD, DVD 등의 어학 교육자료를 최신식 미디어 플레이어로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오디오-비디오 전용좌석'을 마련하여 시·청취가 자유롭게 됐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이전된 어학실습실은 새로운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언어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정보, 클릭하세요”

인터넷 '동국취업센터' 신설... 학내외 채용속보 검색가능

본교 취업지원팀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본교 취업지원팀은 본교 홈페이지 '취업·부업정보'란에 취업지원팀 홈페이지 '동국 취업 센터'를 개설해 수시로 바뀌는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동국 취업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에서 학교로 직접 의뢰하는 채용정보와 △외부 취업정보 제공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학교 채용 속보와 엘리트 채용속보를 통해 볼 수 있다. 특히, 취업관련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취업상담을 운영하여 취업지원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부업정보, 어학공부, 각종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며, 인·적성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망직종을 소개하는 등 취업

을 희망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진로

를 고민하는 재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본교 인터넷으로 구인의뢰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독자적인 채용정보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본교 취업정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로 등록돼, 본교생뿐만 아니라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볼 수 있어 독자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의 신봉근 팀장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다른 대학과 차별화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업체측과 지속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를 고민하는 재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취업정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본교 인터넷으로 구인의뢰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독자적인 채용정보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본교 취업정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외부업체로 등록돼, 본교생뿐만 아니라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볼 수 있어 독자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취업지원팀의 신봉근 팀장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서 미흡한 점이 많지만 다른 대학과 차별화 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업체측과 지속적으로 논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영기자 starofeast@hanmail.net

총대, 상반기 감사 실시

대부분 단과대 징계 받아

총대의원회(의장=채진석·경제4)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는 2000학년도 상반기 통상감사를 실시했다.

조직, 예산, 사업, 비품, 풍약 등 총 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결과 11개 단과대가 징계를 받았다.

사법대는 감사자료의 제출시한을 넘겼으며 자료의 내용이 미비하고 예산 지출의 오차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사법대는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아 예산징지 4주

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특히, 문과대는 학생회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학생회가 구성될 때까지 '무기한 예산징지'를 받았다.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 단과대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총대의원회 채진석 의장은 "미시령 사고로 학과 단과대 학생회가 튼튼하게 운영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감사결과 징계내용 및 사유는 <표1>과 같다.

<표1> 감사결과 징계내용 및 사유

Table with 3 columns: 징계내용, 단위, 징계사유. Rows include: 주의, 경고, 예산징지 2주, 예산징지 4주, 예산징지 무기한.

조교제도 개선안 3차협의 진행

학교·원총 시험운영안 합의

지난 6월 13일 조교제도 개선안에 관한 3차 협의가 학교측과 대학원 총학생회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측은 일부 개선안에 이견을 보였으나, 의견 조율을 통해 시험운영안에 동의했다.

시험운영안의 내용은 △교수 1인당 1명의 조교를 배치하는 교수 T.A(Teaching Assistant)는 등록금

50%면제 △교수 T.A와 큰 차이가 없는 수업조교는 폐지 △교육조교, 연구조교는 현행 유지하나 박사과정 조교는 등록금 면제와 월 50만원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로써 전체 조교 예산은 약 4~5억원 증액되었고 이 합의안은 시범운영 후 내년 하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제4차 생협독립법인추진회의

오늘(28일) 5시 상록원에서

생협독립법인추진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제4차 회의가 오늘(28일) 오후5시 상록원 3층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진철 생협이사장을 비롯해 송재운(국민윤리문화학) 생협운영자문위원, 홍성조(산업공학) 교수회 대표, 김윤길 직원노조대표, 유명근(산공4) 총학생회 대표 등 추진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의원회와 이사회 구

성 임원선임과 선출 △생협직원 임원 △회계년도 규정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생협독립법인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3차례의 회의를 거쳐 △14명의 추진위원회 구성 △단장일치제를 통한 회의운영 △전임교원 이상의 조합원 가입자격 △1만원부터 출자금액의 1/5까지의 1인당 출자금액의 한도 등을 결정했다.

한전무대

장학생 미달사태

0...학생복지실은 여분의 장학금을 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중이란다.

신청자가 초과되어 경합을 벌였던 2·3·4학년과는 달리 1학년은 신청자 미달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1학년 학생들이 부진한 성적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인지, 장학금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으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알, "장학금임여(?)는 등록금 일정성비의 법칙에 어긋나는데..."

한 게임 더(?)

0...아버지, 난 농구가 좋아요~" 요즘 농구에 열중한 나머지 만해광장을 헤치는 이들이 있네.

이들은 만해광장 바닥 보수공사로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하러 들어온 학생들이라고.

이 때문에 만해광장 보수공사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의 열의는 식을 줄 모르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알, "한 게임 더해?... 아니면 지킬 건 지키거냐"

작심삼일

0...방학 중 교정의 학생들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준다(?)

매학기 방학초 학교에서 열리는 많은 강좌에는 학생들의 참여가 왕성한다.

그러나 차츰 강좌에 나오는 학생들의 수는 줄어들고 등록해 놓고 이에 안나오는 학생도 있다고.

작심삼일의 속담은 방학중인 동국인에겐 불변의 법칙이니, 이에 한 학생 알, "방학중 학교는 반짝시장이랍니다."

뒷새의 운명은

0...얼마 전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매항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매항리 주민대책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말하는 '주민'들은 해안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법들로 타지에서 왔다가 곧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는 토착주민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는 국방부의 문제 해결의지부족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에 본 회전문무대자 알, "뒷새의 동지를 철새에게 물으니, 뒷새의 운명은..."

김정대 신임노조위원장 인터뷰

6대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을 다할터

제9대 김정대(행정대학원 교학과) 신임 노조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사진/김윤미 기자

김정대 신임 노조위원장

주체로서 총장선출과정에 직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노조 운영의 방침은 = 유니온 스킵은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불평·불만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 공약수를 찾아갈 것이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박영석, 브로드피크 등정

본교 박영석(동국산악회, 체고91줄) 동문이 이끄는 '2000 동국 브로드피크·K2 원정대'가 지난달 30일 세계에서 12번째로 높은 브로드피크(8047m) 등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박동문은 히말라야 8000m 이상 14좌 완등목표에K2(8611m)와 시샤광마(8027m) 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원정대는 현재 귀국해서 등반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 2일 시사광마 등정을 위해 떠날 예정이다.

웹 메일 서비스 실시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오는 9월 4일부터 '웹메일'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 동안 홈페이지 개편으로 사용이 중단되었던 본교 메일 서비스는 기존 사용자들도 신규로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ID@dongguk.edu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ID@cakra.dongguk.ac.kr과 ID@dgu.ac.kr, ID@dgu.edu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정보관리실은 9월말부터 교내 컴퓨터 실습실에 학생증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학생증 인증시스템은 학생증을 소지해야만 공용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현재 약 1천 여대의 PC에 장착하기 위해 관련기기를 구매중이다.

고수동정

- ▲곽노선(경제학)=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에서 World Congress Econometric Society Conference 논문 발표
▲김무곤(신문방송학)=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일본에서 학술자료수집 및 공동저서 발표
▲김상현(사학)=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북한에서 불교유적답사,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
▲김영민(영어영문학)=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및 세미나 참석
▲김주필(생물학)=지난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미국과 브라질에서 열리는 국제학회 참가
▲김준태(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
▲김현정(반도체과학)=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동연구 및 QSRC

- 업무
▲김홍우(언어학)=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티벳 라마교사원 조사
▲박명관(영어영문학)=체고에서 국제한국어학회 논문발표, PAAL Conference논문발표
▲박영환(중어중문학)=지난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 참가
▲박정국(화학공학)=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학술회의 논문발표
▲석원희(화학)=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미국에서 워크샵 참가
▲박준상(수학)=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학술회의 논문발표
▲백수현(전기공학)=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학술회의 논문발표
▲석원희(화학)=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미국화학회 학술포럼 참가 및 발표
▲신재호(전자공학)=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서 열

- 린 국제학술회 참가
▲안민수(언어학)=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자료수집 및 국제학술세미나 참가
▲엄기환(전자공학)=지난달 2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뉴질랜드에 특별기금 해외연수
▲연기희(법학)=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몽골에서 몽골자연생태조사
▲원치선(전자공학)=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ISO의 MPEG 국제표준화회의의 참석,지난달 28일에서 지난 7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논문발표
▲이민웅(생물학)=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식물병리학회 발표 및 회의참석
▲이상일(토목환경공학)=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일본에서 일본 수문, 수자원학회논문발표
▲이승영(국제통상)=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국제경영학회 학술포럼 참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

- 본에서 자료수집 및 일본중소기업청 등 방문
▲이의수(화학공학)=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PSE2000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발표
▲이재진(전자공학)=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학술회의 논문발표
▲이진구(전자공학)=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참가
▲이호규(신문방송학)=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미국에서 지도교수와의 연구수행
▲조훈영(물리학)=지난달 3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동경공업대학교에서 공동연구
▲최대석(북한학)=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에서 탈북자 조사
▲홍영식(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지난달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미국에서 학술연구회의
▲황용호(회계학)=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한중세무학회 학술토론회 참가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주간 양영진 부주간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이메일 ID dgpres 뉴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81·482 팩스 (02)2273-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57

교수연합체 설립의 필요성

연합체 설립으로 신자유주의 대학정책 견제

최근 전국단위의 교수조직 건설운동이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사교련과 국교협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전국대학교수회'이고, 다른 하나는 민교협이 중심이 되어 추진 하는 '교수노동조합'이다. 전자는 노조의 성격을 띤 전문직 단체를 지향하는 반면, 후자는 명백하게 노조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대학의 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학을 정치권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이다. 또 사학에서는 재단의 총보들이 총장으로 임명되어 교수·학생·직원들의 권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두 단체 모두 평균수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 정부의 사이버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에 대한 교수사회의 위기감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노조수준의 활동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보다는 동질성이 더 많다.

국립대학 인기학과와 등록금을 인상해 사립대학과 경쟁하게 만든다는 계획은 모든 교육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정책으로써, 결국 사립대 등록금의 추가적 인상을 부추기게 된다. 또 기부금입학제와 같은 반교육적 제도들을 정당화시키며,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인 대학관련 정책들은 교육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치를 부정하면서 대학을 무차별적 경쟁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부제 실시 강요, 대학의 기능분화 추진, 이공계 대학원 중점지원 육성사업(1995-1999), 교육발전 5개년계획(1999), BK21사업(1999-2005), 국립대학 발전계획안(2000) 등이

학부제와 BK21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은 기초과학의 몰락을 가져와 학문체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고 있다. 학부제는 학생들이 자기 전공만 공부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분야를 섭렵해 넓은 시야를 갖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는 과거의 계열별 모집과 다른

바깥에 학부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기초학문과 비인기 고급학문들을 고사시키는 제도가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대학운영비는 절감되었지만, 국가백년지대계로서는 방향을 크게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박정원 사교련 부회장, 상징대 경제학과

교수노동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봉제와 계약임용제의 도입은 교수의 사회적 지위하락과 교권추락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현재의 재임용제가 '임용기간'만을 정하는데 비해, 계약임용제는 임용기간과 함께 급여와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양성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한다. 물론 계약의 한 당사자가 재계약에 원치 않으면 임용이 되지 않는다. 급여와 근무조건은 교수의 연구업적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봉제와 연결되며, 업적평가제에 의해 개별교수의 업적과 성과가 평가된다. 사학재단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연봉제는 교수들의 연구를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용연구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는 장기간의 연구를 요하는 기초과학

사설
특성화된 단과대 교육개혁안 수립돼야
대학가에도 경쟁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학의 내실있는 교육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이 구체화되면서 국내에 유지되는 외국대학과의 경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정원수 감소에 따른 대학 신입생 자원감소로 대학도 홍보시대,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육부의 권유에 의해 반 강제적으로 일괄 집행된 것과는 달리, 이제의 강단에서는 교수를 중심으로 각 전공의 특성과 실정을 반영한 '작지만 알찬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각 대학 인증제도 도입 확산

"공부시켜 취업문턱 낮춘다"

기업과 학생들 설득 우선과제

대졸자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졸업생 '품질 보증' 시대가 도래했다. '공부 안하느' 대학 풍토를 개선하고 영어와 컴퓨터에 일반 전공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졸업자격인증을' 도입했으며, IMF 이후 심각한 취업난으로 각 대학은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독자적인 제도를 통해 졸업생의 '품질 보증'을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터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와 컴퓨터 자격증을 졸업자격요건으로 정했다. 이와 같이 졸업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성균관대는 지난 96년부터 '3품 인증제'를 시행했다. 3품제란, 재학기간 중 '인성품', '국제품', '정보화품'이라고 불리는 3품을 모두 인정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각각 △유교사상사과목과 사회봉사 △영어 등 외국어 능력 △컴퓨터 능력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3품 외에도 각 품을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 받은 학생에게는 '특품'을 부여하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 성균관대의 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받지 못해 대학원 합격이 취소된 것에 불만,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3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22일 학교측이 승소해 마무리되었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교무팀의 최희철 주임은 "이번 판결로 영어, 컴퓨터, 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인증을 취득해야 졸업장을 주는 방향으로 학사과정 교육을 강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서울대는 자체 개발한 영어검정시험인 텡스(TEPS) 성적이 70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했으며, 이화여대도 2000학년도 신입생부

터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와 컴퓨터 자격증을 졸업자격요건으로 정했다. 이와 같이 졸업자격요건이 강화되면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동국대평등
동국대평등
임소희 takthepower@naver.com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해외연수와 취업시 최우선의 추천을 받는다. 조선대의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인증 받은 학생들은 모두 원하는 곳에 취업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순수 취업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도 있다. 전남대의 '직무능력인증제'는 학생들이 취업할 때 직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어학교육원과 전자계산소에서 3단계 6개월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을 총장이 인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인증제도가 각 기

업에게 얼마만큼의 인정을 받고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본교 취업지원팀의 신봉근 팀장은 "인증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기업의 반응을 확인할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균관대의 최희철 주임은 "외부 기업보다 학생들을 설득하는 것이 앞선 과제"라며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따라와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여 기업과 학생들 모두에게 실득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김진아 기자 ring@dgu.ac.kr

의사들의 재폐업을 지켜보며
수년전부터 거론되었던 의약분업이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의약분업은 지난해 5월 의사·약사·시민단체 3자간 합의 사항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의 일방적인 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의사협회의 조직적 활동에 대한 잘못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잘못된 안이라는 걸 인지한 조합원들의 거센 여론으로 지난 두달 동안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 휴·폐업이 잇따르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미 사이버 투쟁본부의 홈페이지가 해킹 당하거나 비방과 욕설로 가득찬 게시판을 낫설지 않다. 정부가 의보수가 대폭인상, 전공의 처우개선, 의대정원 동결 감축등의 조치를 마련했으나 의사협회는 약사법 개정과 의료개혁의 플랜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더 주력하려는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의협간의 끊임없는 마찰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는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본교 병원의 경우 지난 두달 여간 전공의 폐업만 계속됐 왔으나 지난 8월초부터 응급실과 분만실을 제외한 외래진료가 전면적으로 마비됐다. 전국적인 의협투쟁에 본교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이다. 의과대 학생회 역시 지난 8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병원 앞에서 전면 수업거부와 전원 지원원 제출을 위한 전막농성이 진행중이다. 실질적으로 본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우 큰 불편은 없다고 하지만 의사들의 폐업과 휴업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의약분업 사태를 지켜보며 의사와 정부에 당부하고 싶다. 현 시점에서 환자를 외면하느냐 아니면 변화를 주도하여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느냐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의사의 몫이다. 그리고 이번 의협투쟁이 의사와 정부와의 단기적인 투쟁이 아니길 바란다. 또한 어떤 법이 결정되든 시행에 앞서 국민들과 대비책을 공론화하고,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뒷받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동국대학교가 '99학년도 결산과 2000학년도 예산자료를 공개합니다

동국대학교 동국학원 이사장 오 록 원 총장 송 석 구
내부감사내건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감사로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1999회계년도(1999.3.1~2000.2.29)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바, 회계처리가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되었으며, 주요업무도 적절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000년 5월 31일
학교법인 동국학원 감사 이기화
감사 전연성
감사 김정휴
외부회계감사내건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1999회계년도(1999.3.1~2000.2.29)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종합대차대조표를 포함한 1999회계년도의 재무제표는 동국학원의 2000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1999회계년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31일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이찬하

학교회계 자금계산서 및 예산서
(교비회계 및 기성회비회계 합산)
1999결산 : 1999년 3월1일부터 2000년 2월29일까지
2000예산 :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
(단위: 백만원)
과목, 자금수입, 자금지출
1. 당기회계수입, 1. 당기회계지출
2. 기금회계수입, 2. 기금회계지출
3. 기금회계수입, 3. 기금회계지출
4. 기금회계수입, 4. 기금회계지출
5. 기금회계수입, 5. 기금회계지출
6. 기금회계수입, 6. 기금회계지출
7. 기금회계수입, 7. 기금회계지출
8. 기금회계수입, 8. 기금회계지출
9. 기금회계수입, 9. 기금회계지출
10. 기금회계수입, 10. 기금회계지출
11. 기금회계수입, 11. 기금회계지출
12. 기금회계수입, 12. 기금회계지출
13. 기금회계수입, 13. 기금회계지출
14. 기금회계수입, 14. 기금회계지출
15. 기금회계수입, 15. 기금회계지출
16. 기금회계수입, 16. 기금회계지출
17. 기금회계수입, 17. 기금회계지출
18. 기금회계수입, 18. 기금회계지출
19. 기금회계수입, 19. 기금회계지출
20. 기금회계수입, 20. 기금회계지출

법인회계 자금계산서 및 예산서
1999결산 : 1999년 3월1일부터 2000년 2월29일까지
2000예산 : 2000년 3월1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
(단위: 백만원)
과목, 자금수입, 자금지출
1. 당기회계수입, 1. 당기회계지출
2. 기금회계수입, 2. 기금회계지출
3. 기금회계수입, 3. 기금회계지출
4. 기금회계수입, 4. 기금회계지출
5. 기금회계수입, 5. 기금회계지출
6. 기금회계수입, 6. 기금회계지출
7. 기금회계수입, 7. 기금회계지출
8. 기금회계수입, 8. 기금회계지출
9. 기금회계수입, 9. 기금회계지출
10. 기금회계수입, 10. 기금회계지출
11. 기금회계수입, 11. 기금회계지출
12. 기금회계수입, 12. 기금회계지출
13. 기금회계수입, 13. 기금회계지출
14. 기금회계수입, 14. 기금회계지출
15. 기금회계수입, 15. 기금회계지출
16. 기금회계수입, 16. 기금회계지출
17. 기금회계수입, 17. 기금회계지출
18. 기금회계수입, 18. 기금회계지출
19. 기금회계수입, 19. 기금회계지출
20. 기금회계수입, 20. 기금회계지출

종합대차대조표
(법인회계, 학교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와 병원회계 종합)
당기 : 2000. 2. 29. 현재
전기 : 1999. 2. 28. 현재
(단위: 백만원)
과목, 자산, 부채, 자본
I. 유동자산, I. 유동부채
II. 비유동자산, II. 비유동부채
III. 기금자산, III. 기금부채
IV. 기타자산, IV. 기타부채
V. 기타자산, V. 기타부채
VI. 기타자산, VI. 기타부채
VII. 기타자산, VII. 기타부채
VIII. 기타자산, VIII. 기타부채
IX. 기타자산, IX. 기타부채
X. 기타자산, X. 기타부채
XI. 기타자산, XI. 기타부채
XII. 기타자산, XII. 기타부채
XIII. 기타자산, XIII. 기타부채
XIV. 기타자산, XIV. 기타부채
XV. 기타자산, XV. 기타부채
XVI. 기타자산, XVI. 기타부채
XVII. 기타자산, XVII. 기타부채
XVIII. 기타자산, XVIII. 기타부채
XIX. 기타자산, XIX. 기타부채
XX. 기타자산, XX. 기타부채

2000년 통일 대축전의 의의

# 분열을 딛고 하나의 힘으로 결집



통일운동 행사는 지난 90년 첫 범민족대회가 열린 후 매년 재야·시민단체 및 학생운동권이 공동으로 치러왔다.

그러나 지난 9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이종린, 이하 범민련)에서 주관하는 '제7차 범민족대회'는 연세대에서 열리고, 동시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의장=이창복, 이하 민족회의)에서 주도하는 '96평화통일 범민족대회'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각각 열렸다.

뒤이은 97년은 조선대와 서울용산 가족공원에서, 98년은 서울대와 임진각, 장충단공원에서 분열된 모습의 통일행사를 치렀다. 이는 '통일운동의 분단위기'라는 오지 못할 표현이 점차 현실화 되어감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었다.

당시 민간통일운동이 분열된 양상을 띠게 된 것은 범민련과 민족회의의 갈등이 시초가 되었다.

통일운동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에서 범민련은 국내에 있는 반통일 세력을 타도하고 남·북·해의 3자가 연대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반면, 민족회의는 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당면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분열상을 보였던 통일운동 진영의 모습은 지난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서울대에서 열린 '99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에 함께 참가하면서 지난 몇 년간의 분열된 모습에서 벗어나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그리고 올해 범민련 주축으로 준비한 '남북공동선언 관찰과 민족의 자주·대단결을 위한 2000년 통일대축전'이 한양대에서 열렸다.

이번 통일대축전은 무엇보다도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정부, 정당, 시민단체들과 폭넓은 연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물론 정부·정당 및

## 6·15 선언정신 대중적인 확산

### 각계각층 다양한 연대 모색

민족화해협력협의회(의장=강만길, 이하 민화협) 등과 같은 관련 통일운동 단체들과의 전면적인 결합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민화협 청년위원회에서 청년학생 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고 국회의원의 축하 영상메세지와 축전 등을 얻고자 시도하는 등 각계각층의 조직이 단결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장이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통일대축전에서는 6·15 선언 정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데에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분열된 민간통일운동진영의 단결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통일운동의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통일대토론회 지상중계

# 6·15선언의 의의와 통일운동의 과제 토론

### 한총련·민화협 등 통일단체 참가 ... 6·15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발표

광복 55돌을 맞은 지난 8월 15일, 통일대축전이 한창 치러지고 있던 한양대학교 한편에서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주최로 '청년학생 통일대토론회'가 열렸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산하 한총련과 민화협 청년위원회, 청년연석회의, 전대협 동우회 등 통일운동단체의 대표들이 참가해 '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청년학생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전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 통일운동 세력내갈등 정당성 상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 전대협 동우회의 김재용씨는 "통일이 현실적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남한국민 모두가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총련 이희철 의장은 "통일을 외국의 간섭없이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이 논의되었다는 점과 남북이 각각 내세우는 통일 방안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화협 청년위원회 김형주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남한의 통일운동 세력내의 갈등의 해소가 큰 변화"라며, "앞으로 남한 내에 여러 통일운동 세력들은 사소한 입장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연석회의 대표는 앞선 의견들에 동의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교류협력력을 강화해서 진정한 북한 바로 알기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화협은 6·15 공동선언이 갖는 여러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군비축소문제와 전쟁방지를 위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또 다른 문제로 통일운동이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둔갑하여 민간주도에서 정부주도로 돌변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도 나타내었다.



지난 8월 14일 통일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대토론회'가 열렸다.

#### "대중들에게 신뢰받는 통일운동 개발해야"

따라서 더욱 중요해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청년·학생의 역할에 대해 민화협은 "지금이야말로 청년운동과 학생운동이 대중적으로 다가가서 대중들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운동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협 동우회는 "통일운동이 곧 사회민주화 운동으로 향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반미를 중심으로 민족 대단결의 명분과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고 했다.

전대협 동우회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초로 삼아 실천해 나가되 청년·학생들은 작은 것에 연연하기 보다 멀리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총련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이 매우 중요한 만큼 민간 통일운동이 정부, 정당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나아가 청년·학생은 통일의 새세대로 남북 상호간 자주 교류 강화를 위해 힘을 쓸 것이라고 표명했다.

####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공동결의문 발표

토론을 마치고 참가단체들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과 각오를 담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와 전면이행 촉구 △통일의 결실들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자주적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운동 지속적 전개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 △남북 상호간 민간교류 확대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 특별취재단

- 김진아 기자
- 김은선 기자
- 김윤미 기자
- 박현호 기자
- 김현중 기자
- 김지혜 기자
- 엄태규 수습기자
- 김도영 수습기자
- 우정현 수습기자
- 김혜진 수습기자
- 손상민 수습기자
- 김현정 수습기자
- 이성희 수습기자
- 김남정 수습기자

## 통일대축전에서 만난 사람들

### "북한노동자와 함께 할 그날까지"

지난 15일 통일대축전(이하 통축)에서 빨간 조끼를 맞춰 입은 대우사회보호노동조합 소속 조희석(39세)씨를 만나보았다.

-이번 통축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그 동안 생업에 바빠 다른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파업을 하면서 통일운동에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처음으로 통축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파업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는 기본적 권리를 정당히 외쳤을 뿐인데 지난 6월말 롯데호텔 사건이 일어난

후 사회보호노동조합도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정권은 우리를 집단이기주의라 매도했다.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소감은.  
=사실 전에는 통일이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당장 급하기 때문에 통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축에 와서 통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처음 깨달았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노동자와 어떤 협력을 하게 될 지 기대된다.

## 노동자

###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젊은이가 되길"

경기·용인지역 장기수 후원회의 김수미씨(77세, 가명)를 만나보았다.

-고령의 나이로 2000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여하기가 힘들지는 않았는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의 탄압으로 민간인 특히 나처럼 나이드신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이제 통일 대축전도 평화적으로 개최되면서 우리 나라 사람 모두의 행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장기수 후원회'에 가입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 장기수 후원회원

=우리 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기수가 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장기수들을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젊었을 때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학생들에게 하고픈 말은.  
=피 끓는 젊은 나이에 불의에 맞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도 그랬고 내가 살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예전보다 나아진 지금의 사회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 매향리 주민

### "매화향기 가득한 마을이 그림습니다"

매향리 폭격장의 폐쇄를 위해 싸우고 있는 주민 지원주(49세)씨를 만나보았다.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매향리 폭격장 문제가 마스크를 통해 울해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런 때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매향리의 어려움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매향리의 실정은 어떠한가.  
=매향리 주민의 80%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황금어장이 황폐해 팔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그리고 직접피해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주민들도 매일 사격훈련의 소음이 시달리고 있다. 또한 국방부의 미흡한 태도는 이 지역 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투쟁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우리는 88년부터 싸워왔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매향리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에 자주 참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적 관심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다.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1. 기 간 : 2000. 8. 30(수) ~ 9. 1(금), 3일간
2. 장 소 : 교내 컴퓨터실
3.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 교부 : 각대학 교학과 및 학과 사무실

가. 조정된 시간표 (분반 및 폐강)에 의하여 정정해야 할 학생 나. 지적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학생으로 초과학점 신청 학생 다. 2000학년도 제 2학기 추가신입, 복학 및 편입생 라. 정해진 선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마. 상기사유 이외에 임의정정하는 학생은 3과목 이내에서만 가능함

5. 유의사항  
가. 개인별로 배부되는 수강신청확인원에 본인의 수강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정원을 작성하여 PC 정정후 교학과에 제출할 것.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에는 교양과목 및 일부 전공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교과목의 수강제한인원 범위내에서만 수강신청 정정이 가능함.  
라. 분반으로 인하여 수강강좌가 변경된 학생은 이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별도 정정이 필요없으나, 일부 전공은 학부(과)에서 지도받아 수강신청 정정기간중 학생이 수강신청 변경해야 함.  
마.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원은 학생이 작성한 후 학업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함.  
※ 학업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수강신청원 지참시만 컴퓨터 실습실에 입장할 수 있음.

## 교무처장

## 언어연구교육원 특강 안내

1. 영어회화(15명 정원)  
강사진 : 풍부한 강의 경험을 가진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원어민 전임교원  
강 의 : Beginning, Intermediate, Advanced  
시 간 : 오전 7:40~8:50 (월, 화, 수, 목, 금) 오후 5:00~6:00(월, 화, 수, 목, 금)
2. Writing & Speaking (10명 정원)  
강사진 : TESOL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전임교원 Darcy Shipman, Mary-Anne, Willmott  
강 의 : 영어 작문반으로 강사와 1:1 Error Collect를 통하여 어휘와 문법을 익히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글쓰기 연습  
시 간 : 오후 5:00~6:30 (월, 수, 금)  
수강료 : 100,000원
3. Screen English(20명 정원)  
강사진 : EBS 영어강사 Michael LeBlanc  
강 의 : 영화를 통한 생생한 생활영어 학습  
시 간 : 오전 7:40~8:50 (월, 화, 목, 금)
4. AFKN / CNN 청취(20명 정원)  
강사진 : Joseph Schouweiler  
강 의 : 체계적인 청취훈련을 통한 듣기능력 향상  
시 간 : 오전 7:40~8:50 (월, 화, 목, 금)
5. 나용준 TOEIC CLINIC (50명 정원)  
강 사 : 나용준(오를라호마 주립대 영문학 박사, 영어교수법 부전공)  
시 간 : Listening Toxic : 오후 5:00~6:00 (월, 화, 수, 목, 금)  
Reading Toxic : 오후 6:00~7:30 (월, 수, 금)
6. TOEFL 준비반(50명 정원)  
강 사 : 오금동(보교 교수, 영국 Bell Colleg 영어교육과정 이수)  
강 의 : 2회에 걸친 Practice Tests를 포함한 토크 종합 준비반  
시 간 : 오후 5:00 ~ 6:30 (월, 수, 금)
7. 일본어 강좌 (15명 정원)  
강 사 : 분교 일어일문학과 전임 교수  
강 의 : 초급 수준의 일본어 회화강좌  
시 간 : 오후 5:00~6:30 (월, 수, 금)

· 특강기간 : 9월 4일~10월 19일 · 접수기간 : 8월 29일(화요일)부터 선착순 마감  
· 수 강 료 : 70,000원(Writing & Speaking 제외) · 접 수 처 :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언어연구교육원(Tel. 2270~34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언어연구교육원

## 근로장학생 선발계획 안내

- 2000학년도 2학기 근로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자격  
가. 학비조달이 어려운자(8학기 이수예정자 제외)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다. 취득학점 17학점, 평균학점 C0이상인자 (단, 불교대학, 경상대학은 15학점)  
라.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자
  2.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월 자 200,000원 기준, 매월 동국가족통장으로 지급자
  3. 선발방법  
신청서류접수 후 면접을 통하여 선발
  4. 선발일정  
가. 공 고 : 2000. 8. 17(목)~2000. 8. 29(화) 각 대학 및 인터넷 게시판 나. 접수기간 및 장소 : 2000. 8. 28(월)~2000. 8. 29(화) 학생복지실(본관 3층) 다. 면접일시 : 2000. 8. 30(수), 10:00~16:00 라. 면접장소 : 면접담당 본관 3층 학생복지실 앞에 공지 마. 합격자 발표 : 2000. 9. 1(금) 오후 2시, 부업게시판 바. 합격자 소집 : 2000. 9. 1(금) 오후 3시, 각 근무부서 ※ 근로장학생 신청서는 보고 홈페이지 → 여론광장 → 종합게시판 → 학생생활게시판 (http://www.dongguk.edu)에 게시함
  5. 근무부서(선발인원)  
홍보실 PC통신광장관리(1명), 학사지원실 증명서발급(4명), 학생복지실 학생증 발급(1명), 취업자료실 관리(2명), 우체국 우편물처리(2명), 총무팀 예비군업무 보조(3명), 정보관리실 컴퓨터실습실 관리(40명), 문과대 어학실습실 관리(3명), 경영대 B.S.C실 관리 및 우편물수거(9명), 공과대학 우편물 및 실습실관리(1명), 중앙도서관 도서대출 반납(52명), 언어교육연구원 자료대출(4명), 여학생실 계산관 관리(2명)  
※ 괄호안은 신규모집 예정인원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2260-30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 생 처

# 인터뷰

## “자식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목이 메어...”

비전향 장기수 윤희복(84세)씨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끊임없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되새기는 비전향 장기수 윤희복(84세)씨의 주름진 얼굴은 통일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난 14일 통일대축전의 열기가 무르익은 한양대에서 9월 초 북으로 다시 돌아가는 운짜를 만나보았다.

-80평생의 삶을 회고한다면.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이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소년병원’에서 노동을 하면서 사상적 학습을 했다. 결국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남쪽으로 내려와 활동하고, 비전향 장기수의 삶을 살게 됐다. 사실 내 생애를 돌이켜 본다는 것은 분단의 아픔을 되짚어 보는 것이다.

-비전향 장기수로서 옥중생활은 어땠는지.  
=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최장기수 우용각씨의 말처럼 통일을 향한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5년간의 힘든 싸움을 할 수 있었다.

머리털과 수염이 허영계 세어버린 노인이 되어 세상에 나왔지만 0.75평짜리 독방에서도 조국통일을 향한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물론 사상전향공작이 벌어지고 거부에 따른 보복도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고 난 후의 소감은.  
=남·북 정상이 두 손을 맞잡은 광경은 조국통일을 향한 민족의 염원이 빛을 발한 것이라 생각한다.

# 취재낙수

한

0...“통일되면 만남세다”  
2000통일대축전 행사 가운데 북송되는 비전향 장기수를 위한 환송식이 열렸는데.

이날 환송식에서 장기수들에게 남한 방방곡곡의 흙을 조금씩 담은 흙봉투를 전달했다.

장기수들의 손에 한봉투씩 쥐어질 때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었으니.

이에 흙봉투를 받아 든 한 장기수 왈, “반평생의 한은 이제 풀렸건만, 반세기의 한은 언제나 풀릴런지...”

### 화장실 검문소

0...“통일대축전이 열린 한양대 캠퍼스에 난데없는 간이 이동 화장실이 등장했는데.

알아보니 화장실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한양대 측에서 건물을 봉쇄하여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불일(?)이 급해 건물 안으로 들어 가려는 학생을 수위 아저씨가 한명 한명 불러세워 학생들을 요구하며 출입을 통제하였는데.

이에 화장실을 찾아 헤매던 한 학생 왈, “화장실을 돌아가도 통일은 돌아서 안 간다!”

### 대중 통일=대충 통일(?)

0...“통일대통령, 아무나 하나!”  
민화협 주최로 열린 ‘2000 통일맞이 대축전’에 참가하려던 범정학련 학생들이 전경들에 의해 저지당했는데.

이는 ‘6.15선언 지지·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목표 아래 8월 15일 진행하기로 약속한 범민련·민화협 결의대회’가 이행되지 못해서라고.

민화협이 범민련·한총련과 함께 진행하기에는 정부가 규정한 이적단체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러웠을 터이니.

이에 범정학련 소속 한 학생 왈, “대중이 이중적일 때 통일은 오리무중!”

### 통일지가(統一旨歌)

0...“주한미군 철~수(水) 사세요”

통일대축전 기간동안 통일행, 통일팔방수, 통일라이타 등 ‘통일’에 관련한 이름의 물품은 볼티나게 팔리고.

심지어는 국가보안법반전절제 담배와 주한미군 철수 생수까지 구호를 내건 물품들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에 장사꾼, 학생, 농민, 노동자 모두 한마음으로 소리높여 부른 노래가 있으니, “통일이 통일이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 “하나되어 부르는 통일의 노래”

### 노동자 · 농민 · 학생이 함께하는

### 다양한 문화행사와 비전향 장기수 환송식

8월 13일 14:00

명동거리에서는 2천년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1만여명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명동 성당 앞에서부터 길게 늘어진 대열 사이로 시민들이 지나갔고, 학생들은 주로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무대 앞에 나선 이천재 주한미군철수투쟁 본부장은 “6.15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대축전을 강조했다.

13일 17:30

참가자들은 명동성당에서 통일대축전이 열리는 한양대학교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려 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전투경찰들이 이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학생들의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큰 충돌 없이 지하철

로 한양대까지 이동했다.

13일 20:50

### 통일선봉대(이하 통선대) 환영식

통선대 환영식 통일대축전의 중앙무대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은 많은 인파로 붐볐다. 무대 위에는 ‘농민 할머니가 한반도기가 그려진 깃발을 발사에서 캐네는’ 큰 걸개 그림이 걸려 있었고 운동장 이곳저곳에서도 단일기가 휘날렸다.

부산에서 출발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통일운동을 하고 돌아온 통선대가 소개되자 곳곳에서 ‘지랑스러운’ 이들을 함성으로 맞이했다.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새긴 웃옷을 입은 통일선봉대는 새가 탈게 탄 얼굴을 하고 있었고,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청년 통선대 대장 김지홍씨는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금 매항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시민들과 얘기하는



통일노래가 나오자 참가자들은 옆 사람들과 서로 춤을 추며 어울렸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모두 하나가 되어 즐겼다.

동안 통일의 열기가 높아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오후 11시부터 연극, 노래, 문예 등이 다양하게 펼쳐진 통일문화한마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특히 북한가요인 ‘반갑습니다’나 ‘휘파람’ 같이 귀에 익은 곡이 나오자 참가자들은 옆 사람들과 서로 춤을 추며 어울렸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모두 하나가 되어 즐겼다.

8월 14일 21:00

### 비전향 장기수 환송식

5만여명의 인파가 발 디딜 틈없이 환송식 장소인 한양대학교 운동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이날 환송식은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곧 돌아가는 장기수에 대한 축하와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자리였다. 또한 곧 통일이 되어 만날 날을 기약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박수 갈채를 받으며 환송되는 장기수들이 무대로 오르기 시작했고 오랜 옥중

생활로 쇠약해진 장기수들은 청년 학생들에게 업혀거나 부축을 받으며 무대 위로 올랐다. 장기수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될 때마다 이를 바라보던 참가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고 감격을 참지 못해 감격을 참지못해 우는 사람도 있었다.

단상 위에 선 우용각 장기수 대표는 “지금도 비록 작별을 해야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떠나간다. 우리는 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시작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고별사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밝혔다.

통일선봉대는 그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은 흙을 북으로 가는 장기수들에게 전달했고 깊은 포옹을 하기도 했다.

14일 23:00

### 2000년 통일대축전 본행사

조용하고 숙연한 북소리로 시작된 통일대축전 본행사는 각계 각층의 민중들이 모인 자리였다. ‘남북 공동선언 관철과 민

족의 대단결을 위한 통일 대축전’답게 학생, 노동자, 청년, 농민 등이 하나가 되었다.

통일대축전준비위원회 깃발을 선두로 큰 파도처럼 물결을 그리던 백여개의 깃발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이 중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 수십 개 단체들의 깃발들은 단상 위에서 춤을 쳤다.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민 상임의장은 “철천만이 한결음이면 통일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각자의 길에서 주체당계 나서는 모습을 통해 온 민중이 주인이 되는 통일조국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단병호 위원장은 “민족 단결의 원칙은 엄숙한 탄압속에서도 선배 투사들과 민중의 노력으로 꺾이지 않고 오늘의 결실을 맺었다. 외세는 경제 침탈 야욕으로 경제적 예측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있다.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힘으로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하자”고 말했다.

## 2학기 일반휴학

1. 접수일자 : 8. 28 (월) - 29 (화)
2. 대 상 자 :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 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3. 신청서류 :
  - ① 보호자 날인된 일반휴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휴학연장원 (휴학연장지)
4. 접수장소 : 소속 단과대학 교학과 (아간은 아간교과 교학과)
5. 유의사항 :
  - ①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추가 연장가능)
  - ②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 2학기 특별시험

1. 시험과목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험시간
RGCC01	교필	컴퓨터 활용과실습2	1	09:00 ~ 09:50
RGCC10	교필	실용영어2	1	10:00 ~ 10:50
RGCC08	교필	영어회화2	1	11:00 ~
2. 응시자격 : 2000학년도 2학기 1학년 재학생
3. 전 형 료 : 과목당 30,000원
4. 최대신청학점 : 3과목 (3학점) 까지
5. 원서접수기간 : 2000. 8. 28(월) ~ 8. 30(수)
6. 시험일시 : 2000. 9. 2(토), 09:00
7. 접 수 처 : 교무처 학사지원실 (본관 3층, ☎ 2260-3039)
8. 전형방법
  - 가. 컴퓨터 활용과실습2 :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한 후 이의 내용 평가 (MS Word,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활용, dBase 등의 실습테스트)
  - 나. 실용영어2 : Native Speaker가 녹음한 테이프를 시험실시후 평가
  - 다. 영어회화2 : 외국인 교수와의 Interview 후 5가지 기준으로 평가(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
9. 합격자 발표 : 2000. 9. 7(목), 09:00
10. 성적등급 표시 :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 A0를 부여함
11. 유의사항
  -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의 수강신청을 불허함
  - 나. 고사실은 원서접수시 안내함

## 교 무 처

## 등록금 수납 안내

2000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수납합니다.

1. 납부기간 : 2000학년도 8월 21일 (월) - 9월 2일 (토)
2. 납부처 및 대상 학생

납 부 처	대 상 학 생
제일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 (전산처리된 장학생 및 복학생 고지서 포함)
제일은행 동국대 출장소	(1)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 (등록금고지서와 장학금 지급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하여 차액만 납부) (2) 등록금이 수정된 학생 (재무회계팀 확인) (3) 9학기 이상 등록 대상 학생

### 3. 기타 납부 방법

- (1) 인터넷 수납 가능 - 제일은행 인터넷 뱅킹 : <http://banking.kfb.co.kr>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http://banking.kookminbank.co.kr>
- (2) 현금 자동 인출기 - 제일은행만 가능
4. 기 타
  - (1) 등록금 고지서 분실시 해당 교학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시 등록금으로 학적이 상실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기타 문의 사항은 재무회계팀 (T : 2260-3707)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 무 처

##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1. 신고 대상
  - 가. 2000년도 2학기 편입·복학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나. 일반 휴학후 복학하는 학생도 포함
2. 신고 제외자
  - 가. 대학원의 연구·관리자 과정
  - 나. 북한과 동시 휴학하는 자
  - 다.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 (재학증명서를 직장 예비군부대에 제출)
3. 신고 기간 : 2000. 8. 21 - 9. 8
4. 신고 장소 : 예비군 연대본부 (본관 2층)
5. 신고시 지참물
  - 가. 증명사진 1부 ('99년 12월 이후 전역자)
  - 나. 인장
6. 문의처 : 예비군 연대본부 (TEL 2260-3078 ~ 4)

## 예 비 군 연 대

## 2000년 한가위 귀향

### 1. 귀향차 일정

가. 귀향차 떠나는 날 : 2000년 9월 8일 오전 10시(정시 출발)  
나. 귀향차 접수할수 있는 사람 : 동국대 생활 조항원-교수·학생·직원 (학생증 지참하셔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다. 귀향차 접수

접수장소	중앙도서관	동국관 4층 로비 (아간교과 학우들을 위해)
접수일자	8월 30일(수)~9월 4일(월)	8월 30일(수)~8월 31일(목)
접수시간	이른 11시 ~ 늦은 3시	늦은 5시 30분 ~ 늦은 6시 30분

라. 귀향차 가격 : 대한민국 어디든 5,000원 (도시락, 기념품 제공)  
귀향차 접수는 본인이 학생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타학교 친구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의 경우 가족의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출발 당일날 어떠한 이유로도 자리가동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출발 당일날은 절대로 접수를 받지 않고 또한 환불도 되지 않습니다.  
출발 당일날은 미리 표를 끊으신 분들만 출발하실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 등이 불가능합니다.

### 2. 제주도 귀향 비행기 안내

가. 서울 → 제주도  
· 귀향차 접수 : 9월 7일 목요일 : 오후 5시 50분, 오후 6시 30분, 오후 8시 30분  
· 9월 8일 금요일 : 오전 7시 20분, 오전 7시 30분  
나. 제주도 → 서울  
· 9월 14일 목요일 : 오전 9시 55분, 오전 11시  
· 9월 14일 목요일 : 오후 6시 15분  
다. 제주도 비행기 금액 : 145,000원에서 40% 할인된 금액 87,000원(공항이용료 포함)

### 3. 귀향차 노선

충주-문경-삼주 / 청주-대전-논산  
당진-서산-예산-홍성-보령-서천 / 익산-군산  
전주-정읍-고창 - 전주-임실-남원  
창원-진해 / 창원-밀양-김해  
거창-진주-사천 / 인제-속초  
원주-강릉-동해-삼척 / 제천-영주-안동  
나주-무안-목포 / 순천-여수  
순천-별교-고흥 / 영동-김천-구미  
영천-포항 / 경주-울산  
부산직통 / 울산직통  
마산직통 / 진주직통  
대구직통 / 포항직통  
광주직통

### 4. 주의사항

· 귀향차 환불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절대 환불이 안됩니다.

## 학생복지위원회

박사학위

철학 (8)

- ▲강명희=설일체유부와 유기행파의 수행론 비교연구
- ▲이직수=Autum University '대승기신론'의 연구 -중생축복관을 중심으로-
- ▲최기표=천태 접차지관의 수행체계 연구
- ▲황 옥=무작 'Asanga'의 유식학설 연구
- ▲한지경='성유식론'에서의 식과 경의 관계연구
- ▲안명희=유기유식의 수행체계 연구
- ▲김형록=불산덕의 선사상 연구
- ▲윤태현=경방 역의 연구

문학 (10)

- ▲오용원=농암 김창협외의 시문학 연구
- ▲김중진=불교기사의 유통 연구
- ▲박상란=신라·가야 건국 신화의 체계화 과정 연구
- ▲김희경=Shakespeare 로만스 극의 정치성 -가부장 신화를 중심으로-
- ▲정사현='서시'에 나타난 워즈워스의 감각력
- ▲김희만=신라 관동제 연구
- ▲서인원='동국여지승람' 연구
- ▲김병근=신라 왕권의 성장과 지배이념의 연구
- ▲김성희=조선 후기 회화기법 연구 -인물화 묘법과 산수화 준법 및 수지법을 중심으로-
- ▲김기령=조선시대 호불론 연구 -합허와 백곡을 중심으로-

교육학 (2)

- ▲강중구=상담에 대한 유식학적 접근
- ▲최옥이=한국 대학 평생교육의 미래 예측

법학 (6)

- ▲이상진=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각조건과 매수인보호
- ▲조성호=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법리에 관한 연구
- ▲권혁호=회사정리법상 부인권에 관한 연구
- ▲최종술=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관한 연구
- ▲최선우=치안 서비스 공동생산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박진현=소년들의 자기 Image가 비행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학 (1)

- ▲김병호=한국,대만,필리핀의 민주화에 관한 비교연구 -이행 및 공고화 과정을 중심으로-

행정학 (2)

- ▲하영재=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정보 시스템에 관한 연구
- ▲안성찬=지방교부세배분의 지구노력 유인체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의 잠재세입대비 지방세부담비를 분석-

경영학 (4)

- ▲권대욱=해외건설 프로젝트 일정·현금 흐름의 통합분석 -휴리스틱 기법을 중심으로-
- ▲김창균=최고경영자의 인식과 실무자의 전문성이 공보관련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군의 대령급 이상 지휘관 및 공보 실무자를 중심으로-
- ▲정성훈=해상운송물품의 고유화자와 관련된 손해와 그 책임에 관한 연구
- ▲이민영=한국 사이버쇼핑몰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학 (8)

- ▲이용근=분광학적 방법에 의한[Fe(CN)5NO]2- 복합 화합물 계의 물성 연구
- ▲유연봉=중성자가 조사된 원자로 압력용기 강물의 물성 연구
- ▲이경해=A New Synthetic Approach to the Carton Skeleton of Forskolin
- ▲박정기=조절가능한 대기모형에 관련된 특성치의 통계적 연구
- ▲정광호=게임개발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구현을 위한 UML과 컴포넌트 응용에 관한 연구
- ▲김경숙=아시아 지역 현황 기사 양태 연구
- ▲전미경=개회기 가족유리의 변화와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신문과 신소설을 중심으로-
- ▲남민이=우리나라 수의와 그치법에 관한연구

농학 (1)

- ▲윤홍태=콩의 isoflavone의 함량과 콩추출물이 효소활성 및 항산화성에 미치는 영향

공학 (14)

- ▲이영호=Ka 밴드 MIMC 전력증폭기의 설계 및 제작
- ▲윤관기=HEMT를 이용한 무선 단말기용 MIMC 전력증폭기에 관한 연구
- ▲한 인=분산시스템을 위한 순서화 방송통신 프로토콜

- ▲설승진=분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에이전트-온-디맨드 기법
- ▲안은영=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상으로부터 물체 전체 형상의 계층적 복원
- ▲홍병기=분산 파일 시스템에서의 에이전트에 의한 캐쉬 일관성 방식
- ▲김일남=정주력 특성을 갖은 양축 다분할 여차형 LDM의 설계
- ▲정일록=효율적인 소각재 용융처리를 위한 플라즈마토치 용융시스템의 설계
- ▲김영호=냉간성형 C형강 기동부재의 좌굴강도 평가
- ▲정희용=매립형 철골주각부의 하중전달과 내력평가
- ▲박우근=건축설비의 시스템최적화를 위한 LCC평가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 ▲변계성=인텔리전트 사무소 건물의 건축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 ▲이재윤=건축물 지하구조체의 단열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 ▲장영숙=소프트웨어 품질의 정량적 측정과 평가-ISO/IEC 9126 기반으로 사례연구-

한의학 (16)

- ▲오정석=황금 열수추출물의 지질과산화 억제작용과 아질산염 소거능에 관한 연구
- ▲황원만=Effect of Salviae Radix on cisplatin-induced acute renal failure in rabbits.
- ▲김희준=Protective effects of Bombycis corpus on amyloid-β-induced cytotoxicity, lipid peroxidation, antioxidative enzymes and NO synthesis in rat astrocytes.
- ▲정인우=거품지보단이 Mongolian Gerbil의 기억성 전뇌허혈 모델을 미치는 영향
- ▲김희철=홍화해독탕이 Paraquat로 유발된 생쥐의 중독에 미치는 영향
- ▲김기범='냉경·칠소노년'과 경락기화학을 통한 체질원리에 관한 연구
- ▲정성채=상한 이론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
- ▲윤성목=애엽 약침액의 입에방 효과에 미치는 영향
- ▲이지은=대조환이 흰쥐의 유발된 고지혈증 및 적출심장에 미치는 영향
- ▲장규태=Inhibitory Effect of Oriental Herbal Medicine Daejowhan on Platelet-Activating Factor(PAF)-induced Platelet Aggregation
- ▲이지향=양수감염에 의한 조산에 황기가 미치는 영향
- ▲이영호=Effects of Yukmi-jihwang-tang-Carthamus tinctorius L. on inhibition of phosphorylation mediated by tyrosine kinase Src.
- ▲이동녕=A Study of Yukmijihwangtang-Jahage extract on Regulation of Bone Resorption.
- ▲양원미=Inhibitory effect of Taeyoungjon-Jahage extracts on cellular phosphorylation, COX expression and PGE2 production.
- ▲신상삼=An experimental study on inhibitory effects of GamiSilsoSan on the atherosclerosis in hypercholesterolemic rabbits.
- ▲김성용=사상체질유형에 따른 체격 및 체력수준 비교연구

의학 (3)

- ▲백효중=위암과 위궤양에서 Helicobacter pylori IgG 항체 역가 비교
- ▲채정옥=정신질환자에 대한 포항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 ▲최정근=진폐증에서 폐환기능과 위험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대학원 (163)

- ▲김경희='종론'의 '견해(disti)'에 대한 비판 연구
- ▲김영희=유식의 사본설에 관한 연구
- ▲이재수=유마경에 나타난 사회사상 연구
- ▲김혜경=고려시대 '능엄경' 사상의 수용연구 - '보한해' 성립을 중심으로-
- ▲김복옥=백운경한의 선사상 연구
- ▲성은경=적호(Santaraksita)의 의경에 대한 비판 - '진실강요' (Tattvasamgraha) 제23장 '외경비판'을 중심으로
- ▲채상우=1960년대의 순수/참여문학논쟁 연구-김수영~이여령 간의 불은시논쟁을 중심으로-
- ▲이철호='무정'과 낭만적 자아
- ▲유준희=전봉건시 연구 -6.25체험시를 중심으로
- ▲김성민=김구용 초기시 연구
- ▲김양원='육조법보단경언해'의 표기법과 음운에 대한 연구
- ▲이철용=거울, 마주보는 거울 -사무엘 베케트의 '오하이오 즉흥곡Ohil Impromptu'와 '발걸음 소리들 Footfalls'에 관한 연구-
- ▲김수영=브레히트의 드라마투르기를 통해 본 캐럴 처칠(Caryl Churchill)의 페미니스트 극 분석-Vinegar Tom, Cloud Nine, Top Girls-
- ▲김중희=Wordsworth의 자연관에 나타난 생명사상-The Prelude를 중심으로-
- ▲송재승=초점 분변화사의 통사적 양상
- ▲임영경=현대일본어의 행위요구표현에 관한 고찰-의리·명령표현을 중심으로-
- ▲최 현=현대 일본어에 있어서 종조사 'yo', 'ne', 'yone'의 연구
- ▲손희진=현대 일본어의 의외표현에 관한 고찰

- 현행 고등학교 일본어교과서의 분석을 통하여-△최수연=태고보우 시 연구
- △정지희=청주 용화사 석불상군의 연구 -사비사지 석불상군과의 관련성-
- △주진령=통일신라 9세기 불의에 대한 연구 -착의법과 의습선을 중심으로-
- △문지연=영·정조시대 채색화조의 연구
- △양수정=명말 북고주의와 동기창의 작품에 관한 연구
- △박용준=삼국시대 마애불 연구-산동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송호숙=배우 백성희(백성희) 연구
- △손영섭=종재후기 유럽 야외무대 공연에서 무대관례(Stage-Convention)에 관한 연구
- △강내영=90년대 후반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연구 - '아미갯돈'을 중심으로-
- △유종미=단편영화 '심청 Binman's Daughter' 제작에 관한 연구
- △유창원=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의 편집에 나타나는 시간 고찰
- △이종연=단편영화 '식당.farewell' 제작에 관한 연구
- △강성룡=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영화의 상징고찰 -'노스텔지어' '희생'의 물과 불을 중심으로-
- △강진영=대만의 영화 공간 연구 -'공포분자' '애정만세' 분석을 중심으로-
- △맹유진=사고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아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정남=타자의 형상 속에서 자아의 심리표현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민정=대상의 단순화와 다양한 표정에 관하여
- △고기복=동북아해역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적협력에 관한 연구
- △김태형=생명권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에 관한 연구
- △이대세=체벌에 대한 형법적 연구
- △이원근=미국법상 금융기관에서의 주의의무의 책임
- △박정수=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미국 회사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순자=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정보화사회의 역기능과 관련-
- △김수연=한국 통일교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황보영=일본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이승준=한국의 국민주 방식 민영화의 개선방안
- △송병호=한국경찰의 순찰활동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미정=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김은주=인터넷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 △이대성=한국 사회에서의 러시아 조직범죄 실태분석과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신경수=교육단체별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1995년~1998년까지의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를 기준으로-
- △김윤택=한일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실증분석 -비용구조 분석과 성장요인 및 생산효율성 평가를 중심으로-
- △한재학=점포소속성이 점포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구매성향과 구매상황을 중심으로
- △김보영=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햄버거점을 중심으로-
- △정주연=광고의 유머내용과 상징컨셉의 일치성에 따른 광고효과 차이 -기존 TV CF를 통해-
- △노형환=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경험과 쇼핑가치에 대한 구조적 연구
- △이재경=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한 유행시상 세분화에 관한 연구
- △천경배=코스닥시장에서의 최초공모주(IPO) 초기성과에 관한 연구
- △양재욱=주가와 거시경제 변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주가, 통화량, 금리, 환율을 중심으로-
- △김재우=한국주식시장의 주가과잉반응 연구-누적초과수익률과 보유기간수익률의 종합적 비교
- △이진환=KOSPI 200 선물의 최적헤지비율과 헤지효율성에 관한 연구
- △유영화=국제무역에서의 인터넷마케팅에 관한 실태분석
- ▲이영중=북한의 대남 경제협상 행태에 관한 연구
- △유형식=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한해남=기업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도입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이선희=기업의 정보시스템 개발환경과 IT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객체지향 기술의 확산 단계에 미치는 영향
- △장호수=객체지향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중심-
- ▲이지혜=경기도 포천군 소흘읍의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변화 분석
- ▲임나영=서울의 지역문화축제
- ▲김경오=지역문화공간의 특성과 기능-서울시 중구 구민회관을 사례로-
- ▲장문현=하의도 민속신앙에 대한 지리적 접근
- ▲윤재성=광전도도에 의한 GaN의 표면 상태에 관한 연구
- ▲이성윤=The study on optical properties of Ge-rich silicon oxide prepar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method.
- ▲이원기=Chitosan-Melamine-Formaldehyde (CMF)

2000학년



- 복합막의 제조 및 특성 연구
- ▲정현상=새로운 세차리 킬레이트 리간드를 가진 팔라듐(II) 착물의 합성과 올레핀의 수소아미드화 촉매반응에 대한 연구
- ▲백진욱=팔라듐 착물의 존재하에서 이산화탄소알코올 그리고 요오드화알킬로부터 디알킬카보네이트의 합성.
- ▲이일훈=소간중 미토콘드리아의 Na+/K+ F0F1-ATPase 활성도에 대한 인산배당체의 효과
- ▲김원용=인터넷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학적 고찰과 인터넷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
- ▲양수철=3단계 표본추출에 있어서 부차표본(m, k)의 최상선택에 관한 연구
- ▲곽은주=몬테카를로 김스 샘플링을 적용한 위험함수가 2차원인 소프트웨어 베이저안 신뢰도 추정
- ▲김현우=NEPP 소프트웨어 신뢰성 모형에 대한 신뢰도 비교에 관한 연구
- ▲최태호=경험생명표 보정에 관한 통계적 기법 연구
- ▲배미향=연립방정식모형에 대한 단일추정법과 동시추정법의 비교 연구
- ▲민응기=Physi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ntomopathogenic Fungus, Beauveria bassiana DGUM 34001 곤충병원성진균, Beauveria bassiana DGUM 34001
- ▲김일권=A Revision On the Genera of Tetrastichinae (Hymenoptera: Eulophidae) from Korea
- ▲이혜진=Particle bombardment를 이용한 OsMADS1 유전자와 Bar 유전자의 다양한 보리품종의 형질전환
- ▲성세라=Optimal method of the Cryopreservation of Rat(Sprague Dowley) Hepatocytes for the Use of Primary Culture
- ▲심중섭=Curcumin Modulates ROS Involved Signalling and Induces Apoptosis in A-431 Cells
- ▲김정호=The Distribution of the Species of Mammals inkyongsangbukdo area Species structure and distribution of mammals in kyongbuk, choongbuk, kyounggi province
- ▲김영주=조경분야에서의 인터넷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최용준=SOM을 이용한 근전도 신호의 패턴 분류
- ▲양성환=60 GHz 무선 LAN 송·수신기를 위한 V-band 국부발진부 설계에 관한 연구
- ▲이용태=슬롯구조를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의 설계
- ▲김태희=동영상 전송을 위한 트랜스코딩과 압축 알고리즘
- ▲성중수=그룹 관리자를 이용한 한정 수신 시스템
- ▲문용민=마스킹 모델을 이용한 오디오 워터마크
- ▲김신우=대용량 파일 시스템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 ▲송자영=리눅스 운영체제하의 OLTP환경에서 RAID 레벨 5의 효율적인 캐쉬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 ▲김병수=숫자를 돌려쓰는 최소사각형에 기반을 둔 자동차 번호판 추출
- ▲박태원=저속도 네트워크 환경에서 비디오 데이터의 효율적인 재생방법
- ▲우희정=내용기반 검색을 위한 의료 이미지의 질감 특징 추출과 인덱싱
- ▲박영선=디자인 패턴을 활용한 컴포넌트 개발 환경의 구축
- ▲이창진=능동램프 모드로 동작하는 Single-Stage AC/DC 플라이백 컨버터의 설계
- ▲안병무=단일 전력단으로 구성된 AC/DC 풀브리지 컨버터에 관한 연구
- ▲노성호=OFDM 방식을 이용한 전력선 통신 시스템에 관한 연구
- ▲김충범=관형복부판 중간수직보강재의 극한거동에 관한 실험연구
- ▲홍경택=고화차수재와 점성토의 확산특성에 관한 연구
- ▲류 권=Rowell 실험에 의한 점토-벤토나이트 차수재의 투수계수의 측정
- ▲김동아=SWMM을 이용한 공항빗물펌프장의 설계
- ▲배재석=신경망을 이용한 지하수 수질 관측망 설계
- ▲김대훈=국내 건설 환경에 적합한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더블티 콘크리트 슬래브 시스템 개발
- ▲김태근=콘크리트충진 각형강관기둥 -H형강 보 접합부내력
- ▲김성희=콘크리트충진 각형강관단주의 압축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 ▲임용필=구조적인 손상을 입은 R·C보의 강관 휨보강 효과
- ▲김영규=매립형 철골주각부의 스티드 코넥터 전단내력
- ▲박용재=퇴계 이황(1501-1570)의 '경' 사상을 통한 도산사원 건축공간의 고찰
- ▲김성욱=공동주택의 온돌난방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
- ▲최 진=아파트 개조 실태에 관한 연구 -압구정·분당을 중심으로-
- ▲배두한=반도체용 방지재 몰딩 공정 모사
- ▲이상민=라텍스 필름의 투습도 및 내오염성에 관한 연구
- ▲김준우=수계고분자 Emulsion Film의 형성 및 기계 투과도에 관한 연구
- ▲오종신=대장균에서 Bacillus subtilis GlutamyI-tRNA synthetase의 발현 및 정제
- ▲홍정연=식품 랩과 병마게 밀착물에서 식품 유사용매로 이행되는 알킬페놀류의 분석
- ▲김연정=전통 고추장의 레올로지 특성
- ▲배제풍=식품 동결건조기의 에너지 절약형 제어시스템의 개발
- ▲민철기=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IP MultiCast 트리구조 설계에 관한 연구
- ▲임용원=Deep drawing 공정을 위한 곡면매링 알고리즘
- ▲안성호=인터넷상거래시스템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에 대한 분석
- ▲임용원=실내 쾌적감상 하이브리드 신경망 모형에 관한 연구
- ▲김시환=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물 고객세분화에 관한 연구
- ▲태돌만=Petri Net을 이용한 웹의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 ▲김종민=BPF 공통 노드 제거에 의한 필터링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 ▲남성욱=병행성 명세를 위한 Z의 확장
- ▲스문지=HIMP를 이용한 다국어 입력 시스템
- ▲안정혁=이동통신 중계기용 합체의 발열기술

# 후기 학위수여자



개발  
 △남상현=회전지능구조물의 능동진동제어  
 △한우진=항산화제 섭취가 운동지속시간과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희안=댄스스포츠의 생활체육 운용에 따른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이승렬='영주·경매권'과 '상한론'의 대응, 양명병에 대한 상관성 연구  
 △민건우=몽충하초가 Hydrocortisone을 투여한 흰쥐의 Nitric Oxide Synthase활성 및 Testosterone 함량에 미치는 영향  
 △박철수=배종등이 CCl4로 유발된 mouse의 간손상에 미치는 영향  
 △김현수=Effect of Salviae Radix on impairment of membrane transport function in rabbits with myoglobinuric acute renal failure  
 △박창조=Bromobenzene 독성에 의한 흰쥐의 간기능손상에 미치는 가미오령산의 영향  
 △이경아=구백의 항돌연변이 및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  
 △정영재=갈화의 항돌연변이 활성에 관한 연구  
 △신상국=CCl4유도 간 독성에 대한 통충하초의 항산화 효과  
 △신광식=생지황 추출물이 DNCB로 유도된 생쥐의 Allergy성 접촉피부염에 미치는 영향  
 △신용승=봉독약침액이 생쥐의 Type2 collagen유발관절염증 세포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연도=전갈약침액이 생쥐복강내 macrophage의 염증성 cytokine 생성에 미치는 영향  
 △장희욱=설기의 의화사상에 관한 연구  
 △홍세정='삼지선 권일' 어석을 통한 주화정의 의화사상에 관한 연구  
 △이희철=갑초, 정향, 지모 및 황백이 백서의 혈청 Serotonin, Melatonin 농도 및 행동양태에 미치는 영향  
 △윤성현=인삼이 양수감염에 의한 조산에 미치는 영향  
 △곽동걸=실소산이 CCl4로 유도 간손상 Mouse의 기능회복에 미치는 영향  
 △김소식=대산의 항산화 효과에 관한 연구  
 △손수근=신유혈의 침자극과 황기약침이 실험용 생쥐의 면역활성물질 IL-1β의 유전자발현에 미치는 영향  
 △박수진=이온삼투요법을 위한 독활기생탕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정성=편타성 손상 환자에 대한 임상 분석 및 예후 조사  
 △지명철=HPLC를 이용한 산조인의 수치에 따른 성분비교연구  
 △허 성=월국환약이진탕이 전기자극 스트레스를 받은 mouse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길수=월국환약사물탕이 전기자극 스트레스를 받은 mouse의 면역기능에 미치는 영향  
 △강희주=위암 및 위암의 전구변형에서 p27kip1의 발현양상  
 △장재식=만성 B형 간염에서 인터페론과 라미부딘의 단독치료와 병합치료의 효과 비교  
 △최석진=사람 배아와 중기 태아의 뇌 발달에 따른 세포증식과 아포토시스의 양상  
 △신혜경=수지침부 절단상의 복합조직이식술에 대한 임상적 고찰

## 블교대학원 (8)

△이영남=대승기신론의 번뇌 연구

△김광태=재가 노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최평규=청소년 비행의 예방방안에 관한 연구-청소년 가출에 대한 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상백=청소년상담의 선심리치료적 연구  
 △김중형=무용의 청소년복지 활용방안 연구(영산재의 바라춤, 나비춤을 중심으로)  
 △송호영=방과후 아동지도 집단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김경미=사회복지관의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계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신윤희=한국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시대사적 연구

## 행정대학원 (105)

△박용삼=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병태=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연구  
 △황차량=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 제고 방안 연구 -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조종민=직업군인의 전역후 생활안정 방안 연구 - 군 직업보도제도를 중심으로-  
 △김영신=협회 조직에서의 위임자와 대리인에 관한 연구 - 한국전기공사협회를 중심으로-  
 △박근원=신세대 병사의 윤리교육이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충·효·예 교육을 중심으로-  
 △허병익=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영권=스포츠행정조직 구성원의 의사소통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세열=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염영경=한국의 안보, 군사외교에 관한 연구  
 △김창환=대북 포용정책이 남북 관계개선에 미친 영향  
 △김대현=한국의 통일기반 조성방안 연구  
 △류지현=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김광주=한국 국방중기계획 수립과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장수길=김정일 체제의 경제난과 체제유지 전략에 관한 연구  
 △김정희=무기체계 획득관리업무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정형식=한국 방위산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래=남북한 군비통제 가능성 연구  
 △구기홍=국방참모대학 교양위계개신 사업관리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길갑=북한이탈민민의 귀환대책에 관한 연구  
 △김형모=기동전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반도 미래전쟁 대비를 중심으로-  
 △고성진=북한의 대미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고영주=북·일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백광성="저강도 분쟁" 대비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통합방위법을 중심으로  
 △이석영=미국의 군사전략이 한국안보에 미치

는 영향 - Win-Win 전략을 중심으로-  
 △최탁환=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연구  
 △조성상=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하광규=한·미·일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정동호=군 범죄수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원오=불교문화재범죄의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이중수=인터넷 관련 범죄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상철=한국 경찰공무원의 사기관리에 관한 연구  
 △최원태=경찰관리자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김윤정=여성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황규정=경찰의 이미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항준=한국 조직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 조직범죄와의 연계문제를 중심으로-  
 △홍영기=치경철도 도입에 따른 체감치안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박해룡=약사법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윤=Cyberspace에서의 반사회적 행태에 관한 연구 -국가안보 침해사태를 중심으로-  
 △조용연=합법적인 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손 연=중국경찰의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김규희=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현장대응체계를 중심으로-  
 △박문환=한국 민간경비 인력의 자질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임옥주=한국형 납골당 시설도입에 관한 연구  
 △김은경=북한이탈주민 적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김진환=장애인을 위한 복지정보 활성화 연구 -사회복지 웹사이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유순하=방과후 아동 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대전지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황정호=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와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문자=사회협창단의 활성화방안 Revitalization Plan of Temple Chorus  
 △김현주=병원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서울시내 종합병원 3곳을 중심으로-  
 △이윤희=가정도우미사업의 개선방안 -인양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상은=영유아 민간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과제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임재경=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배근석=재가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이남주=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에 관한 연구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안 개발을 중심으로-  
 △정기화=전문간병인 자격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송창래=범죄피해현황과 피해구조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 범죄피해 구조방안을 중심으로-  
 △한민준=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시설장의 지도감독 개선방안 -서울 구로구 구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홍중희=사회복지관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중심으로  
 △채희자=은행 비정규직 여사원의 기업복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K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이미숙=초등학교 부설 유아반의 운영 개선방안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김수희=사립고등학교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금운용을 중심으로-  
 △고경숙=노인주간보호센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중심으로-  
 △송정화=특성화사회사업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의 지원 활용을 중심으로-  
 △최영운=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개선방안  
 △변현태=김정일 체제의 위기요인과 변화 전망  
 △이병무=북한의 대남군사정책에 관한 연구 -김정일 시대를 중심으로-  
 △김영희=주민참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영선=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보기술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최승일=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방안 연구

(농협하나로점 고객 중심으로)  
 △조봉길=과업상황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품언어도를 중심으로-  
 △오필성=기업 이미지 결정 요인 연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박정선=국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조직 구성원과 마케팅 활성화 측면으로-  
 △김창수=한방 진료를 선택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오현석=유명인 중복모델에 의한 광고홍동효과에 관한 연구  
 △김성균=기업이미지가 소비자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개인용 컴퓨터 제조, 공급 업체 중심으로-  
 △김동운=주택 구매후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명근=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현준=ISO 9000 인증제도를 통한 TQM 활성화 방안  
 △추성훈=금융환경 국제화에 따른 국내은행의 전략  
 △최길란=우리나라 사립대학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중심으로-  
 △김길영=담보물건과세에 관한 연구 -사례 중심으로-  
 △김수영=은행신용카드 부문의 영업점 업적평가에 관한 연구  
 △장노규=고객만족경영을 위한 인터넷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철도승차권 예약 중심으로-  
 △김성현=국방예산의 전자상거래 구현에 따른 기대효과와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권준성=전자상거래 도입요인에 관한 연구 -혁신이론 활용을 중심으로-  
 △김현수=무기체계 획득업무에서 CALS 구현방안 연구  
 △김동현=인터넷시대의 금융기관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도희섭=지역개발과 관련된 주민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예천군 분생사태를 중심으로-  
 △손양선=주택저당채권 유통화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태순=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용배=Silver 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Silver 주택을 중심으로-  
 △민홍철=전자상거래 이용시 호텔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영대=인터넷 쇼핑몰의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태희=전자상거래(EC)에서 효율적인 물류정보화에 관한 연구  
 △김정현=한국의 국제선물시장과 차익거래전략에 대한 실증 분석

## 경영대학원 (36)

△김진원=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사례 중심으로-  
 △유낙준=진급 기회 상실자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연구  
 △안광영=신세대 장병들의 의식성향에 따른 군 리더십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기갑/기계화부대 사병을 중심으로-  
 △박천화=은행의 팀제 조직 도입과 운영에 관한 연구 -H은행사례를 중심으로-  
 △최승일=병원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 강남 소재 종합 전문 요양기관 창구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 조사-  
 △김성원=연봉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고동준=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방부 군무원을 중심으로-  
 △이중수=자체브랜드와 OEM(주문자 생산방식) 브랜드를 사용자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CRT, TFT LCD 모니터 시장을 중심으로)  
 △김민복=유기농산물의 소비형태에 관한 연구

△주인영=수학과 수행평가의 현장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진=효율적인 수학을 위한 수학실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권태를=산술-기하평균 부등식에 관한 연구 -다양한 증명방법을 중심으로-  
 △신원철=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수학과 CAI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박재복=고등학교 공통수학 수행평가에서 서울형 문항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  
 △이정호=웹보조 학습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방승길=수학영재 육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에 관한 연구  
 △최재훈=대학수학능력시험의 대수문제에 대한 분석과 지도방법 연구 -수리탐구 1 영역-  
 △전제기=수학과 수행평가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및 실시현황 연구  
 △박두훈=중학교 수학과 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정구일=소집단 협력 학습을 통한 수학과 학습 부진아의 효과적인 지도에 관한 연구  
 △정재섭=공동체식 내면화를 위한 도덕 방향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층을 대상으로-  
 △박찬규=농촌과 도시지역 초등학생의 윤리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권오상=초등학생의 공동체식에 대한 조사 연구 -경기 북부지역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이충원=초등학교아동의 폭력성향과 가정환경의 상관성 연구  
 △김성진=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미의 개념  
 △최영현=Chuck Close의 초상화에 관한 연구-극 사실적 표현과 그 변천에 관하여-  
 △변동열="자연"을 통한 회화적 표현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민문기=주체적 우주(COSMOS)에서 유추되는 조형언어에 대한 접근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홍원표=초등학교사예에관한 연구 -초등학교 4.5.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이상구=현대회화에 나타난 문자 연구  
 △김현숙=일반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의 분석연구 -서울소재 고등학교 중심으로-  
 △김선기=단원 김홍도의 산수화 연구  
 △이종민=이중섭 작품세계의 특성 연구  
 △한 욱=중국 북송시대 궤도의 조준도 연구  
 △윤영진='문신'의 생애와 작품연구  
 △백학란=현대채색화에 나타난 민화적 요소  
 △김후일=복재(복재)에 투영(투영)한 삶의 조형(조형)  
 △강민구='문자'의 위상에 관한 연구 -언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희=직업군인의 체육활동과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 연구 -남.여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박현진=몽금적의 유교사상에 관한 연구  
 △류승현=초등학교 체육교과 수행평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이상복=접촉적 최대운동부하에 따른 휴식형태가 혈중 유산 제거에 미치는 영향  
 △이중대=중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에 있어서 TV 스포츠 프로그램의 영향에 관한 연구  
 △임진수=중등학교 체육교과서의 역할수행을 통한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조영진=Hemingway 소설 속의 전쟁과 사랑의 의미 A Farewell to Arms 와 For Whom the Bell Tolls를 중심으로  
 △최정수=중등 영어수업에서의 영미 시 도입 연구  
 △서혜라=영어 조기의 실태와 효과에 관한 연구  
 △송화옥=Nathaniel Hawthorne의 작품에 나타난 죄와 구원의 문제-The Scarlet Letter를 중심으로-  
 △이은미=Eugene O'Neill의 작품속에 나타난 'Forces Behind'에 대한 연구 -Mourning Becomes Electra, The Great God Brown, Long Day's Journey into Night를 중심으로-  
 △신현준=Mark Twain의 도덕관 및 인간애에 관한 연구-Huckleberry Finn를 중심으로-  
 △최순자=전후 현대인의 고뇌와 극복-Saul Bellow의 Herzog를 중심으로-  
 △양혜유=Tennessee Williams 작품에 나타난 여주인공들의 의식 변화  
 △김미선=Mossbauer 분광법에 의한 화산암의 Fe이온에 관한 연구  
 △오정희=Mossbauer 분광법에 의한 약수에 포함된 철의 원자가 상태 연구  
 △이재훈=MBE방법을 이용한 GaN 박막의 성장에 관한 연구

## 교육대학원 (86)

△정승래=학급담임교사의 학급경영능력 진단  
 △한동훈=인문계 고등학교 학급담임교사의 지도성에 대한 분석적 연구  
 △주재호=종합고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학생 인식 분석  
 △오덕환=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임중룡=중학교 부장교사의 갈등 분석  
 △고금성=사립고등학교의 재정구조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김순자=내외통제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송미진=주의력 결핍 · 과잉행동에 대한 교사의 견해 및 지도방법 조사연구  
 △이연자=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부적응문제 행동과의 관계 연구  
 △서태희=중 · 고등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부모 애착수준과의 관계  
 △황양복=중학교 라보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조사 연구  
 △김동성='순교자(The Martyred)'에 나타난 구원의 미학  
 △채정남=경관에 소설 연구  
 △류인식=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양미숙=(백운거사전(백운거사전))과 <예산은자전(예산은자전)>의 자서전적 성격 연구  
 △김희승=다중매체 시대의 문학 방법론 연구  
 △정석성=경기도 지역별 인구증가에 관한 연구 -1985~1998년을 중심으로-  
 △이희우=고등학교 제4차, 5차, 6차 과정의 지리교과서 내용의 비교 분석 -자연환경과 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공지윤=구당 유길준의 경제사상 연구  
 △오우석=조선후기 향청의 운영과 기능 연구  
 △이희용=영제 이관장 사상연구 -강화학과를 중심으로-  
 △윤우경=연안 박지원의 사회, 경제사상  
 △신현주=수준별 과제 학습을 통한 선수 학습 부진요인 해결 방안 연구  
 △강승욱=구성주의에 기초한 협동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  
 △최강수=수학학습 부진아 감소를 위한 포트폴리오 활용방안 연구

2000학년2학기

# 신규교수 프로필

 <p><b>이영섭</b> (이과대학 통계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세대 응용통계 졸</li> <li>Iowa주립대 통계학 석사학위 취득</li> <li>Rutgers대 통계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NCR Co. Senior Software Engineer</li> <li>모형추론 전공</li> </ul>	 <p><b>김선정</b> (이과대학 생물학과 조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 생물교육 졸</li> <li>KAIST 생물공학 석사학위 취득</li> <li>KAIST 생물공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생명공학연구소 동물발생공학실 선임연구원</li> <li>분자생물학 전공</li> </ul>	 <p><b>곽대경</b>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대 사회학 졸</li> <li>고려대 사회학 석사학위 취득</li> <li>Hawaii대 사회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 전문위원</li> <li>형사학 전공</li> </ul>	 <p><b>이병무</b> (생명자원과학대학 식물자원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대 농학 졸</li> <li>고려대 농학 석사학위 취득</li> <li>TEXAS(A&amp;M)대 Soil &amp; Crop Sciences 박사학위 취득</li> <li>식물생물공학(형질전환전공)</li> </ul>	 <p><b>윤성이</b>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자원산업융합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농업경제학 졸</li> <li>프루덴셜 환경과학연구소 석사학위 취득</li> <li>동경대 지구시스템공학과 석사학위 취득</li> <li>식품산업정책전공</li> </ul>	 <p><b>이명식</b>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하대 건축공학 졸</li> <li>인하대 건축공학 석사학위 취득</li> <li>본교 건축공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주)경성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li> <li>건축설계 전공</li> </ul>
 <p><b>오병욱</b> (예술대학 미술학과 조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 회화 졸</li> <li>서울대 회화 석사학위 취득</li> <li>파리 8대학조형미술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원광대 미술학과 부교수</li> <li>서양화 전공</li> </ul>	 <p><b>정예경</b> (대학원 미술사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화여대 사학졸</li> <li>본교미술사학 석사학위취득</li> <li>경도대학 미술사학박사학위취득</li> <li>전 본교강사</li> <li>동양미술사 전공</li> </ul>	 <p><b>정준기</b> (불교문화대학 선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영문학 졸</li> <li>본교 불교학 석사학위 취득</li> <li>본교 불교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본교 강사</li> <li>인도(불교) 선사상 전공</li> </ul>	 <p><b>강문호</b> (인문과학대학 국사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사학 졸</li> <li>동해대(대만) 사학 석사학위 취득</li> <li>본교 사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본교 강사</li> <li>동양고·중세사 전공</li> </ul>	 <p><b>허상현</b> (자연과학대학 조경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조경학 졸</li> <li>한양대(환경과학) 환경계획 석사학위 취득</li> <li>성균관대 환경원에 박사학위 취득</li> <li>전 경주대 겸임교수</li> <li>컴퓨터조경설계 전공</li> </ul>	 <p><b>김동현</b> (상경대학 경제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강대 경제학 졸</li> <li>영남대 경제학 석사학위 취득</li> <li>Texas(Austin)대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li> <li>노동경제학 전공</li> </ul>
 <p><b>오원옥</b>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대 간호학 졸</li> <li>고려대 간호학 석사학위 취득</li> <li>고려대 간호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호성기톨릭대 연구강사</li> <li>아동간호학 전공</li> </ul>	 <p><b>손행미</b> (의과대학 간호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 간호학 졸</li> <li>서울대 간호학 석사학위 취득</li> <li>서울대 간호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경인여자대학 전임강사</li> <li>성인간호학 전공</li> </ul>	 <p><b>정승현</b>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한의학 졸</li> <li>본교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li> <li>본교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경주한방병원 전임의</li> <li>한방내과(순환기내과) 전공</li> </ul>	 <p><b>윤철호</b>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한의학 졸</li> <li>본교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li> <li>본교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경주한방병원 전임의</li> <li>한방내과(내분비내과) 전공</li> </ul>	 <p><b>노영현</b>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한의학 졸</li> <li>본교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li> <li>본교 한의학 박사과정</li> <li>전 분당한방병원 전임의</li> <li>한방재활의학과 전공</li> </ul>	 <p><b>이승덕</b>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한의학 졸</li> <li>본교 한의학 석사학위 취득</li> <li>본교 한의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강남한방병원 전임의</li> <li>침구과 전공</li> </ul>
 <p><b>박건욱</b>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대 의학 졸</li> <li>경북대 의학석사학위 취득</li> <li>전 경주병원 임시직 전임의</li> <li>내과(혈액종양학) 전공</li> </ul>	 <p><b>이상권</b>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산대 의학 졸</li> <li>인제대 의학석사과정</li> <li>전 경주병원 임시직 전임의</li> <li>흉부외과(심장질환) 전공</li> </ul>	 <p><b>김종필</b>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교 의학 졸</li> <li>본교 의학 석사학위 취득</li> <li>전 경주병원 임시직 전임의</li> <li>정형외과(소아정형) 전공</li> </ul>	 <p><b>이인구</b>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 의학 졸</li> <li>서울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li> <li>전 서울대 가정의학과 전임의</li> <li>가정의학과 전공</li> </ul>	 <p><b>배재익</b> (의과대학 의학과 전임강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대 의학 졸</li> <li>가톨릭대 의학 석사학위 취득</li> <li>전 강남한방병원 전임의</li> <li>가정의학과 전공</li> </ul>	<p><b>이완</b> (의과대학 의학과 조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 수의학 졸</li> <li>서울대 수의학 석사학위 취득</li> <li>서울대 수의학 박사학위 취득</li> <li>전 뉴욕주립대 의대 연구조교수</li> <li>생화학 전공</li> </ul> <p>사진을 지면화하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p>

**△오정옥**=경주지역 고등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조사  
**△임해옥**=사찰음식에 대한 문헌적 고찰 및 대중화방안 연구  
**△김현정**=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 행태에 따른 식습관 및 영양섭취에 관한 연구  
**△한 옥**=불교계 중등 중립학교 종교의 문제와 방향  
**△박병숙**=정산 송규의 사상 연구  
**△김미자**=불타의 의도교화에 관한 연구 - 장·잡아합경을 중심으로-  
**△권희정**=‘금병매’에 나타난 성문화 연구  
**△김영석**=중국어 광고동사 고찰 -중·영문의 비교 관점에서-  
**△홍철준**=현대 중국어 비교구문 고찰  
**△김정자**=네트워크 구축 장비의 이해를 위한 CAI 설계 및 구현  
**△윤현남**=XML 기반 차트의 표현 및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  
**△홍현영**=구상주의를 바탕으로한 입체도형 학습 WBI의 설계 및 구현  
**△윤성림**=웹기반 양방향 교수-학생 평가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김윤주**=웹기반 영재 코스웨어의 설계 및 구현  
**△박은영**=초등학교 식품영양 학습을 위한 코스웨어의 설계 및 구현

언론정보대학원 (14)

**△박성우**=효과적인 인터넷 광고 구현에 관한 실증적 연구- e-mail광고 및 배너광고를 중심으로-  
**△김성대**=전자상거래시스템 분석, 설계 방법으로 UML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최동호**=아소스싱의 도입에 따른 IT개발

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승주**=은행의 정보시스템 감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J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  
**△이재홍**=조선산업의 성공적인 PDM 구축에 관한 연구  
**△전훈석**=그룹웨어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해군통합사무자동화 체계를 중심으로  
**△김기열**=반론보도청구권 법리 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사례  
**△백규주**=지방화시대에 부합된 군 홍보방안에 관한 연구-지역주민과 관련된 군홍보를 중심으로-  
**△문준철**=군작전에 대한 신문보도 성향분석 96년/98년 북한잡수합 침투사건 중심  
**△김진호**=디지털 시대 정부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방안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를 중심으로-  
**△김윤라**=문화뉴스의 제작과정에 관한 연구- KBS 밤 9시 뉴스를 중심으로 -  
**△장광수**=한국전문신문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기신문을 중심으로 -  
**△지영준**=적십자이미지 인식조사 연구  
**△박진성**=공익광고 메시지에서 지각된 유머의 설득적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기술환경대학원 (27)

**△이창국**=BLDC 전동기의 디지털 속도제어기 구성을 위한 이론적 해석  
**△정하영**=영상검색을 위한 모양기술자의 시뮬레이션  
**△박익수**=외국의 전자관리에 대한 조사분석과 우리 나라의 전자관리 개선방안 연구  
**△정원돈**=동기식 전송망에서의 동기클럭원 공급방안  
**△최영상**=Water Tree에 의한 XLPE 전력케

이블의 절연보강에 관한 연구  
**△홍성화**=변형된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좌심실보조장치의 간접제어 방식  
**△김중화**=시스템차호 개발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서영호**=Pack Drain 공법을 적용한 연약지반 개량사례에 관한 연구  
**△송용현**=건축공사 감리제도의 고찰과 개선에 관한 연구  
**△윤창수**=ESCO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사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이동일**=철골주주책의 공업화활성방안  
**△최병돈**=양동·하회마을 공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진교희**=울시민의 수돗물 사용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허유미**=시판 간장의 품질 평가  
**△박기현**=효율적인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분할 테이블에 관한 연구  
**△나희신**=DES 암호화 방법과 SEED 암호화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김영환**=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산망 구축  
**△강영구**=분산처리 환경에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법 연구  
**△김용민**=소규모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개발프로세스 관리 모델  
**△문일홍**=Intelligent HRIS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박성모**=익스체인지 서버를 이용한 기업 그룹웨어의 효과적 분산  
**△이재진**=웹 기반의 컴포넌트 관리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  
**△장봉섭**=마일리지 교환시스템 구축  
**△차경애**=UMI를 이용한 대여관리시스템의 객체지향 분석과 구현

**△이갑연**=군 수리부속품의 재고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현준**=인터넷 무역사기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박희열**=정수장 응집공정 해석과 응집시설 진단에 대한 조사 연구

문화예술대학원 (11)

**△박희영**=황순원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아동문학적 양상 연구-초기 단편 소설중심  
**△김영순**=고정희의 페미니즘 시 연구-형식적 특성을 중심으로-  
**△박희영**=박완서 소설의 여성상 연구 '엄마의 말뚝'과 '휘청거리는 오후'를 중심으로  
**△장영준**=김성래의 포플라 연구  
**△전수련**=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몸 이미지 분석 연구-김정란, 김혜순, 최승자의 시를 중심으로  
**△하준화**=한국가요의 원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신민요와 트로트가요 비교를 중심으로  
**△염기백**=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 연구  
**△이연희**=한국 영화저널리즘의 작가 이데올로기 분석  
**△권지은**=19세기 신중정화의 연구  
**△김이진**=에서의 두광과 기독교에서의 후광의 비교 연구  
**△이명선**=국악 활성화를 위한 판소리 지도 방법 연구-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지도방법 중심으로-

국제정보대학원 (6)

**△임충천**=미·북 핵협상에 관한 한국정부 대응방안

**△김중섭**=컴퓨터 포렌식스와 전자공증을 응용한 '전자증거 관리시스템' 설계 및 운영방향  
**△윤석길**=전자상거래에서의 상호인증을 위한 인증시스템의 효율성 고려방안  
**△전응전**=멀티미디어컨텐츠 대금결제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김태환**=한국의 해상교통로 보호 전략에 관한 연구  
**△이성성**=해양법상 군함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대학원 (11)

**△이동철**=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참여방안에 관한 연구-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손명호**=경주시 도심공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통행환경과 노상주차 문제 중심으로-  
**△강길남**=군 조직의 갈등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현**=한국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성**=환경평가의 사법적 통제 연구  
**△한기준**=지역개발전략에 있어 주민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경주시 감포지역을 중심으로-  
**△정병하**=미등기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연구-미등기 건축물을 중심으로-  
**△박동희**=경제규제의 조직과 절차에 관한 연구-경제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앞날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편집자

# 인생의 밑거름이 되어준 스승이여

“때가 되었으니 이젠 떠나야지” 강단을 떠나는 김홍철 교수(생명자원대 생명자원 산업유통학)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1955년 학생으로 본교에 입학한 이후 45년간이나 계속된 인연이었다. 이제 그 오래된 끈을 놓아야 할 때이지만 자식과도 같은 제자들이 있기에 그는 여전히 동국인이라고 말한다.



김홍철 교수  
생명자원대 생명자원 산업유통학

“요즘 학생들 노는 시간이 너무 많아. 우리 때는 다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장학금을 타려는 경쟁이 치열했거든. 지금과는 많이 달랐지”

교수이기에 앞서 선배이고 싶은 김교수는 제자들을 위한 따듯한 충고와 함께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리기도 했다.

김교수는 28년동안 강단에 서면서도 학교를 위해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모교 출신으로서 학교 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됐어야 하는데.” 말꼬리를 흐리는 모습에서 그의 겸손함과 학교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

##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 되어라”

김교수는 그의 교육철학을 이렇게 밝힌다.

“우리 나라 대학들은 인성교육에는 관심이 없어. 이제 남은 사람들의 몫이겠

지” 자신도 실천하기 힘들었던 일기기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시집 간 여자는 늘 친정을 걱정하지. 나 역시 같은 마음이야”라며 퇴임 후에도 마음속에 학교를 담아 둘 것이라는 김교수. 반평생 함께 한 학교와의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아쉬움을 감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이다. 또한 현재를 아는 열쇠이기도 하다. 원유한(사범대 역사교육학) 교수는 이 열쇠를 가지고 한국사의 빛장을 하나하나 풀어왔다. 강단을 떠나는 원교수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움을 느낀다. 여생도 역사학에 전념할 수 있어 기쁠 뿐이다”라며 담담하게 퇴임소감을 밝힌다. 하지만

### 퇴임교수 인터뷰

수 없는 듯 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야” 김교수는 이 한마디로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학교를 떠난 후에는 시골에 조그만 농장을 꾸릴 계획이라는 김교수의 모습은 흡사 청년의 열정을 닮아있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더욱 실감케 했던 김홍철

교수를 만나면서 새로 시작하는 인생의 활기참을 느낄 수 있었다.

<진>

hyejinravo@hanmail.net



원유한 교수  
사범대 역사교육학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대할 때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 같아 캄캄했다.”면서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아쉬움을 끝내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올해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 온지 40년. 원교수는 85년 3월에 본교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그 후 15년 간 본교강단에서 좋은 스승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 땅의 밑거름이 될 인재들을 키워냈다.

“한 사람의 인생관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추구한 가치

## “좋은 스승의 모범으로 남고파”

는 학문인 동시에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었다”라며 웃음짓는 원교수는 교육자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또한 원교수는 “현재 동국대학은 질과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불교정신을 교육이념으로 적절히 수용할 때, 특유의 대학문화를 창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마지막까지 학교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앞으로 원교수는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여력이 있다면 국내 명소와 유적지를 두루 답사한 후, 수상집을 내겠다는 열의를 지니고 있다.

“약속이라는 것, 참 중요한 것이다. 나는 내 제자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원교수의 마지막 당부에서 여전히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청년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를 겸비한 그의 앞날에 자신과 사회에 공헌하는 크나큰 성취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수>

eveningstar0426@hanmail.net

## 후기졸업생(총 421명)

### 서울캠퍼스

#### 불교대학 총 15명

오원철 장한신 김홍중 한재희 유남경 박정순 이정아 고원규 서혜서 민선예 김현경 박선영 이찬영 김태순 조을규

#### 문과대학 총 59명

이기희 김수석 김광윤 최준영 오인혁 서석표 임성륜 김광열 조영준 최현정 김명훈 박영숙 김미연 김진아 이찬영 박정일 엄미영 강민경 김은선 권미옥 김지선 박선희 박경혜 안영희 윤숙영 이우인 권연숙 원성열 한경석 김경년 황현중 양승현 김승정 김연선 신현주 이재령 송미라 어진봉 장정미 양국희 박귀옥 신은진 박지연 황규병 임옥경 박수진 강판식 최수영 이승호 나상원 박수진 이문호 김항희 이정우 유정연 양미숙 김지연 민혜숙 이인혜

#### 이과대학 총 29명

김대원 윤인식 박노철 정형우 이영준 박재삼 신희준 오지영 김지은 이수은 정지형 김진용 오인영 서혜진 신지영 김기준 김대식 안양환 백성호 김보희

박용성 이우광 이세미 한옥기 배재삼 임성훈 허만호 장영준 김방현

#### 법과대학 총 12명

신현호 정우철 서법광 박명진 김태훈 권순아 김철룡 조성룡 박성환 이동욱 문형욱 채규광

#### 사회과학대학 총 43명

박하중 원용석 계승연 장세호 김성훈 홍동훈 문상용 정현준 김영미 이수연 최민석 안병우 최은진 김영선 김도희 조상민 신인경 김미화 김미선 이윤아 김선미 박재현 황영태 장금용 허태우 문정규 장준수 이정국 신명현 이용호 안덕진 남준섭 이유영 노재승 윤혜진 서영수 임하영 김월화 김현주 송명철 박영진 김중수 임상연

#### 경영대학 총 60명

박남진 김대인 정종욱 박상훈 황기웅 황순욱 안세준 김태호 서동석 송성근 음인준 김중선 김민석 박영수 배수현 이수연 함정남 이용훈 원승재 황효영 김승우 부정남 정병국 김경태 윤선영 김승호 박찬순 이광영 김기현 신현광 정동호 박세철 지성혁 이지식 정규훈

홍성철 임창호 김한숙 김혜영 이선행 이성희 허태우 김승균 홍선희 김경희 김재희 김미라 윤희주 장지연 김경이 정은자 김형준 장승남 조경희 정인규 이훈준 이병문 전창규 정진기 배지선

#### 생명자원과학대학 총 20명

전혜윤 안현진 류경은 윤은석 이정필 종 현 이정범 박노을 김지윤 이인숙 김동석 정건호 이경애 허항일 맹두호 김수양 김낙인 김남규 조성준 김형태

#### 공과대학 총 70명

피재철 모상진 신유철 오화진 변상범 우정하 김민오 김주열 박수현 박노만 황기룡 정광록 백인진 곽호진 김주용 여용득 김현철 신성용 김대석 박병호 원성민 이재혁 박성준 최준범 유석현 정부성 이한익 김경호 김대현 유세종 김관우 최상범 윤보라 신대성 손상철 안우석 손현덕 이재휴 한경래 이영미 김진섭 전국희 배성식 마성준 박완기 박대선 조경철 홍미영 김정광 구지훈 이주엽 전진현 송부영 김정이 조은희 김현영 김지연 윤영한 문수희 이은정 이은영 정종희 현수정 사공전 이정현 김성우 권세택 조수남 김덕환 신재호

#### 정보산업대학 총 41명

설철호 이현욱 이기형 이은영 이희원 최재익 김영균 강태기 신경원 정준원 윤성진 채세혁 윤원일 정병철 홍문표 최정민 함승숙 최민하 인진현 김성일 정철우 김 철 박재호 이택진 홍봉한 김형준 최일관 윤현식 고규식 강주경 오동현 김정응 김성은 고병욱 우진욱 최주희 윤의진 김혜성 전은정 조영숙 김미경

#### 사범대학 총 59명

최동현 김현영 한창호 강승진 황영미 이점희 이대길 권인옥 김혜선 장영희 박경하 정현주 이태진 심지현 송민호 황명희 정혜선 한혜진 김지민 손상철 김규범 홍종숙 백선영 류승현 차주희 이희정 유정현 한지희 이옥희 정소영 강수진 안정현 신미령 한우람 김경남 이화연 김경남 김시현 박수진 이화연 박서영 손주연 송희주 이지은 박준서 임종익 양재봉 이상표 김상형 남궁곤 정원석 김형석 이광훈 김성일 김지훈 정윤실 구혜영 김희정

#### 예술대학 총 14명

김연우 양희정 김현지 나정원 김숙영 조은희 박준홍 오명진 강남규 이재욱 김백현 모지은 전지석 이혜심

#### 경주캠퍼스

#### 불교문화대학 총 11명

신화자 송문권 김기장 박병찬 조현재 홍성우 권혁란 김경태 이화자 이상욱 서인성

#### 인문과학대학 총 39명

이석희 양동규 박일용 최혁재 윤성희 이교창 손정배 정수은 박연희 김성은 김정원 허진오 윤재용 김보수 강은숙 김순이 김오영 서희락 이병관 조재성 이혜영 박은실 김수연 홍신자 장은주 김수경 양윤희 최문정 전강목 이미정 오정환 백경석 권정미 한재명 김대현 박대승 윤두원 조준희 최상혁

#### 자연과학대학 총 39명

이상현 김동현 전종정 박주현 이종훈 정유미 김원화 이은선 이연희 김경진 홍대형 김형진 최민성 이상원 김은영 정경희 김연정 김란숙 박성진 배선영 김재홍 김호성 신재식 이문호 권주은

전현중 배철호 이상욱 김상복 엄 철 최성운 김한성 김민경

#### 법정대학 총 23명

권경화 유승훈 문유진 김기수 석진환 김현진 김홍문 이시영 이우섭 이종대 이창주 조승경 김건우 배 준 이형자 이은경 최인식 권한길 이재열 임희정 이희은 공원식 강필규

#### 상경대학 총 53명

양승훈 이도렬 김중호 김현동 김기환 주소영 박중호 김도희 류영희 김동우 백순남 김갑준 안성길 박준표 박재모 정찬석 우신영 김윤환 송동욱 안병규 이덕화 김광철 김재현 박성철 이창수 김미라 권운학 윤정홍 권준수 박현숙 김세은 김계현 원다은 유권호 이경남 박남제 권현숙 김은정 최임선 이종철 이용규 이상민 최정혁 손태락 양희순 배정혁 이훈우 김민섭 임민정 임미희 변지혜 이명주 이은경

#### 관광대학 총 15명

문찬호 박명환 김상민 송민석 노준혁 손준혁 하창엽 정해욱 박두현 김덕일 박의대 윤인숙 정승혜 한상호 유주훈

### 달하나 천강에

## N세대에게



유 광 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새천년 들어 처음 맞은 광복 55주년을 감격과 눈물로 보내야 만 했다. 반세기 동안 그리던 혈육들을 만나 일차 안고 기쁨의 눈물과 슬픔의 통곡을 쏟아내는 이산가족의 상봉 장면들이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이다. 겨레가 처한 이산의 아픔이 과연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이 어디서 연유하고 있는가를 새삼 깨닫게 해 주는 것들이었으며, 지구촌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를 실감케 한 일 대 파노라마였다.

이번 행사는 두말할 필요 없이 '6·15 공동선언'의 가시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공동선언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고, 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상봉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첫째는 '이산의 아픔'이었다. 혈육간의 정을 그리는 아픔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 어느 아픔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봉은 고향 땅을 밟을 수도, 한 이불 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도 없는 '갑방식 상봉'이니 어찌 응어리진 가슴을 풀 수 있었는가.

둘째는 '분단의 고통'이었다. 국토의 분단은 타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올 수 있겠는가.

셋째는 '통일의 열망'이었다. 통일이 겨레의 숙명적 과제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사실 통일 없이는 이산의 아픔도, 분단의 고통도 해결될 수 없다. 그러기에 이산가족들이 한결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그렇게 목놓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연유 아니겠는가.

이번 상봉을 계기로 겨레의 통일 의지는 한층 높아졌다. 이산가족 상봉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식, 북한의 정치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비록 어렵지만 북한 도와주기에 동참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할 N세대들은 통일에 관심이 적고, 심지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는 젊은 세대에게 감히 부탁한다. '해야만 하는 일'도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위해 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젊은이들은 겨레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이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제 2회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준비 상황

# 세계인의 문화를 만나는 아우름의 축제

## 동서양 문학 재창조한 총체극 돋보여

넓은 세상과 큰 꿈의 만남, 경주에서 다음달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1일간의 문화여행이 펼쳐진다.

2년전 '새천년의 미소'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의 서막이 올랐다면 올해는 '만남과 아우름'으로 그 두 번째 문화마당을 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는 더 이상 지방행사에 머물지 않는 비약을 거듭하고 있다.

신라의 처용 이야기를 담은 총체극을 시작으로 입체적이고 생동감있는 문화체험과 특별 이벤트가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크게 △문화 이미지전 △영상·전시·공연 △ASEM(아시아·유럽 문화화학회) 행사로 짜여져 관객들에게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행사는 문화

관광부에서 준비한 '우루왕' '신라천년의 춤'과 같은 수준 높은 공연이다. 특히 총체극 '우루왕'은 영국 셰익스피어의 '리어왕'과 한국 최고의 서사무가 '바리데기' 이야기를 접목시켰다. 두 작품의 재창조를 뛰어넘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될 이 연극은 생명과 상생의 메시지를 담고있다.

한편 이번 엑스포에서는 고전의 재현에 머물지 않고 젊은 활기를 덧입히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캐릭터 쇼 △천축국 대탐험 △국제 청년문화 캠프 등이 진행되고, '대학의 날' 행사가 그 의미를 더해 간다. 전국 30여개의 대학이 참여해 대학 율타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대학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을 내용으로 한 △마당놀이 △사자춤 전시 △모형항공기 쇼가 엑스포장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

굴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엑스포와 동국축제'가 벌여질 다음달 23일은 행사장에 분교를 알리는 홍보부스가 설치되고 국악 공연과 한방 무료침구기술·건강상담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할리우드식 영화와는 또 다른 유럽국가들의 예술성 높은 영화와 세계 민속 음식전을 통한 새로운 맛의 경험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행사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하 팀장은 "세계의 문화적 가치를 하나의 순결로 이어놓는 자리"라며 세계인의 문화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성공적으로 개최된 지난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문화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회를 살맛나게 하고, 상처입은 자연을 보듬는다. 이제 '과연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그리고 지금 세계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만남과 아우름'이 있는 경주로 떠나보자.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 “평범한 영화관으로 만족할 수 없다”

### 고급화·전문화 경향 ... 관객위한 배려 우선돼야

최근 영화관마다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외형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영화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그 내관까지 변화의 흐름에 휩싸여 있다. 한 건물 안에서 영화관람과 식사, 게임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좀 더 새롭고 신선한 영화관들의 등장 앞에서 더 이상 큰 이슈가 아니다.

'영화를 즐기는 제2의 동물원'이라는 뜻의 'ZOONOOZ(주공공이)'나 영화를 통해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는 '하이퍼텍 나다'는 영화관의 이름을 색다르게 짓는 것과 동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차별을 꿈꾼다. ZOONOOZ의 경우는 극장 경영을 강제규사단의 (주)강제규필름이 맡고 있다. 이는 단지 극장에 영화를 거는 일에서



고급영화관을 표방하는 오리(OGV11)의 골드 클래스관

책임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관객들을 배려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관객에 대한 배려는 '하이퍼텍 나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객석마다 유명 문화예술인의 이름을 붙여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분당에 위치한 'OGV오리11'에는 특별한 상영관이 문을 열었다. 개별 테이블이 마련된 실내에서 영화를 보며 간단한 와인이나 음료 등을 마실 수 있고, 침대형 좌석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GOLD CLASS'라는 이름으로 별도 운영되는 이 영화관은 30석의 제한된 좌석만을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별도의 요금 부과없이 30석의 좌석 값만으로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 이벤트를 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관의 다양한 변화가 모두 성공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클래식 전용관으로 변화를 꿈꿨던 '세네마 오즈'는 클래식 영화만을 전문적으로 상영하

는 영화관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클래식 영화를 외면하는 관객들에 의해 적자를 면치 못하자 경영주가 바뀐과 동시에 개봉영화만을 상영하게 되었다.

오늘날 관객은 단순한 스크린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편안한 좌석과 음·화질, 게다가 영화관람 전·후까지도 관객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객의 눈길을 끌기 위해 혹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영화관의 외형부터 시설, 서비스까지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상업적 이익에만 치우쳐 관객에 대한 문화적 서비스를 간과한 채 외형적 변화만을 꿈꾼다면 희망은 없다. 제대로 된 기획과 사전 준비 속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그 속에서 관객의 만족을 추구할 때 변화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최근 서울캠퍼스에서 가장 가까운 극장인 대한극장도 개축에 들어갔다. 과연 대한극장은 어떻게 바뀐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설지 기대된다.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음료 자판기들은 모두 오른쪽에서 돈을 넣도록 되어있다. 가위를 쓰려하지만 모두 오른손잡이용으로 여간 불편하지 않다. 왼손으로 식사를 하면 주위를 의식하게 된다. 전세계에서 10명중 1명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지난 13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세계왼손잡이의 날을 맞아 '왼손잡이 편견 없애기' 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한국왼손잡이 협회와 각 PC 통신 왼손잡이 동호회 회원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모두 왼손에 흰 장갑을 끼고

'왼손잡이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라' '오른손잡이가 되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왼손잡이 편견 없애기 운동' 참여 서명도 왼손으로 받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한국왼손잡이협회 강미희 회장은 "왼손잡이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오른손잡이들의 편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왼손잡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난 왼손잡이야”

### 왼손잡이 편견없애기 운동...소수의 인권찾기

왼손잡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기시 되어왔다. 역사 속에서 왼손잡이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역시 어려서부터 밥을 먹거나 글을 쓸 때도 항상 오른 손을 사용해야 하는 등 왼손잡이 금기 문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한 예로 왼손잡이 신입사원이 상사에게 왼손으로 술을 따르다 뺨을 맞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미희 회장은 "잘못된 관습이다. 근거 없는 생각들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대로 이어져왔을 뿐"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강미희 회장은 "왼손잡이 아동에게 오른손잡이를 강요하면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학습의 혼란을 겪는다. 왼손잡이는 고쳐야 할 습관이 아니라 인정해야 할 권리"이라고 말한다.

서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왼손사용에 대한 금기가 있었으나 최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문화적 압력이 완화되면서 왼손을 우세 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난 아무

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패닉의 '왼손잡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이다.

이 가사처럼 왼손잡이는 그저 손만 다르게 쓸 뿐이지 사회적 문제나 장애가 아니다. 다만 한국사회에 뿌리 박힌 오른손 중심의 문화가 동등한 입장에서 왼손잡이 바라보기를 힘들게 할뿐이다.

사회적으로 왼손잡이를 빛나간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소외계층을 양산해낼지도 모른다.

김현중 기자  
rocket123@dgu.ac.kr

### 매체비평

#### -영화편

#### 미인

### 구태의연한 몸의 탐험



몸으로 만나 몸으로 이야기하는 영화 '미인'의 한 장면.

극영화에서 배우의 몸은 드라마의 재료이자 스펙터클의 기능을 해왔다. 불완전한 상상력으로서의 영화, 관습 파괴적인 영화 만들기에 천착해 온 여감독은 '몸'이란 소설을 썼고 그걸 '미인'이란 영화로 만들었다. 그리고 배우의 몸을 사건의 중심이자 화두로 설정한다.

드라마를 끌어가는 두 남녀는 이들도 주지 않은 채 몸이 부딪히는 관계로 설정된다. 이들 관계에서 약간의 발전과 파괴가 있지만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단조로운 맵

돌기가 지배적이다. 영화의 배경과 소품들을 모두 흰색으로 삼은 것도 몸을 파스텔 조 색채로 각별하게 드러내려는 의도이다.

잡지사 기자인 남자는 인터뷰 상대로 만난 누드모델 여자에게 집착한다. 그는 사랑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그녀의 몸

에 집착한다. 반면 여자는 남자를 순감적인 위안용으로 삼는다. 그의 몸을 탐닉하다가도 핸드폰이 울리면 체이기로 예정된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섰다. 매번 상처 받고 남자에게로 돌아온다. 카메라는 남자와 여자의 몸의 부딪힘을 탐닉하다가 순간적으로 여자의 몸을 탐색하는데 더 집중한다. 남자의 독백이나 글쓰기도 온통 여자를 탐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남자는 쓰고 관찰하고 여자는 몸부림치는 식이다. 이런 과정은 마음에 눌러 경시되어 온 몸에 집중한다는 이 영화의 명분이 관습적인 남성 관타지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여자가 스스로 "난 참녀인가 봐"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읊조리는 것이나, 특히 후반부에서 관음증적으로 파고드는 여자 몸의 구성구석들은 여자 몸의 신비화와 성적 대상화로 몸을 왜곡한 관습적 편견 속에서 갈광

질광판 뿐이다. 이쯤 되면 대체 마음과 분리해서 몸을 말한다는 것인지(엘 플라투노?), 남자 몸은 어디 가고 또 다시 여자 몸만 구태의연하게 전시되는지 진부해질 뿐이다. 원작소설 제목 그대로 '몸'이라고 하지 않고 영화 제목을 '미인'으로 바꾼 것도 남성시선에서 탐구되는 예쁜 여자의 몸을 고백한 솔직한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보니 '미인'은 전작인 (포르노) '맨?' 보다 못한 아류작이거나 '행부새 몸으로 울었다'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2천년대판으로 편식하게 된 '누드모델 몸으로 울었다'의 언저리를 방황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삶의 지속성으로서의 몸은 더욱 사라진다. 섹스행위로 불태우는 몸의 연출이 화면을 지배하니까, 바닷가에서 어린애들처럼 부끄럼없이 벗고 뛰어놀다가 썰던 겹으로 서로의 성기를 만들어

보여주며 커덕커덕하던가 "나 네 몸 고평" "내 몸 먹어"정도의 대사를 맴도는 이들의 몸의 관계는 온몸의 성욕화를 유지하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설정으로 굳이 몸을 내세우려면 새롭게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식의 호기심과 시선에서 만든 '뺨와 살이 타는 밤' 류의 영화야 비디오삼 한구석을 가득 채우고도 남으니가. 결국 몸의 안무가 섹스안무가 돼도 여감독이 탐구하는 몸이란 성욕에 겨운 소유욕에 불타는 이성의 몸이다. 그것은 전혀 새롭게 않은 낡고 허망한 클리셰일 뿐이다. 그보다 정작 한국영화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은 여성 몸에 대한 관타지가 견뎌진 삶이 각인된 몸에 대한 관심이다. 유지나 영화평론가 / 영화영상학과 교수

# 캠퍼스 공연장, 낡은 옷을 벗어라!

##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유치... 대학문화·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목말라!"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한다. 맥주 광고의 한 장면으로, 여자의 간절한 목소리와 뇌쇄적인 눈빛을 보노라면 맥주 한 컵을 가득 들이치고 싶은 갈증을 느낀다. 욕구를 부각시켜 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참으로 탁월한 광고이다. 이 광고를 보며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목마른 것들도 간절히 말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엉뚱한 상상을 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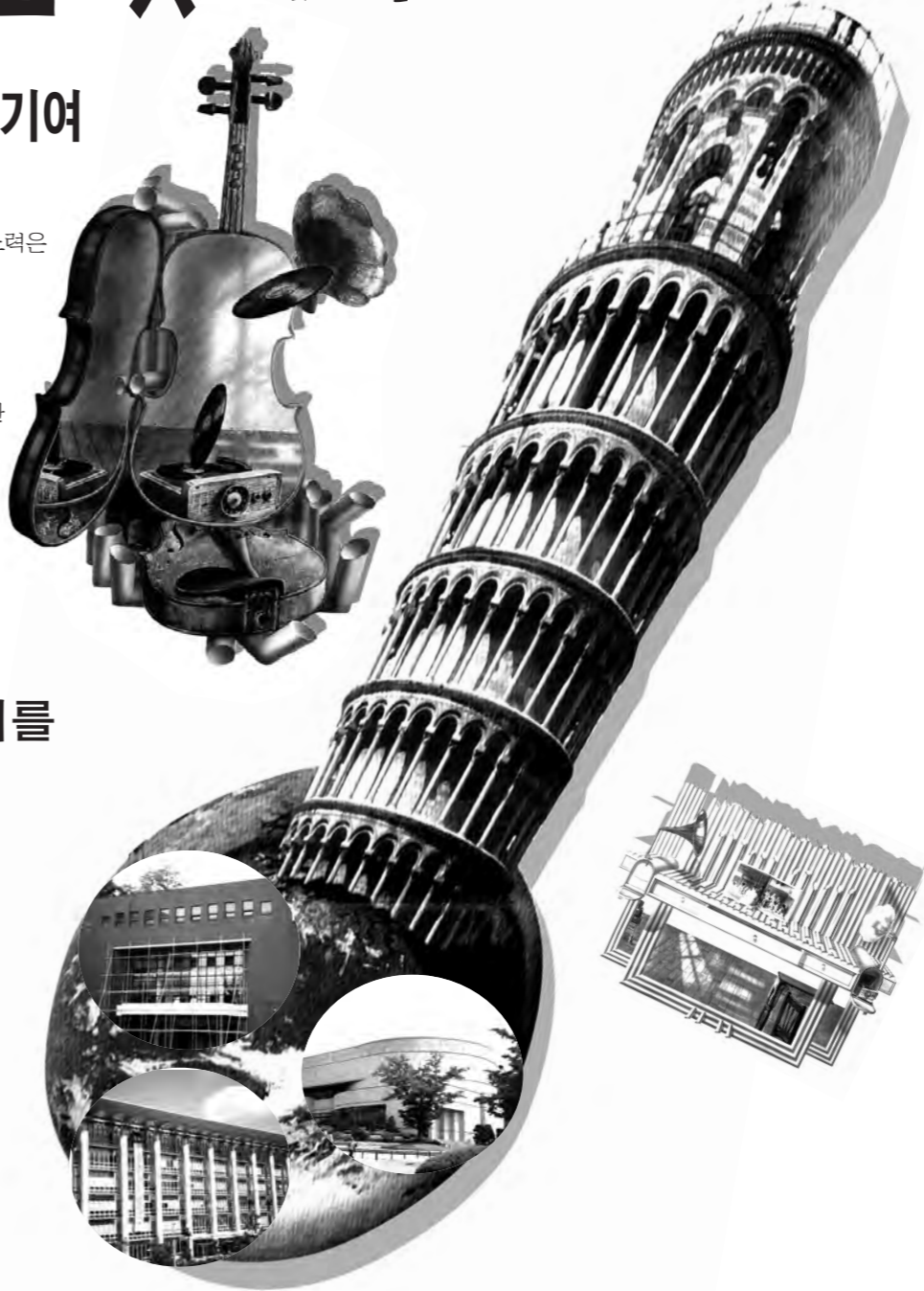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의 대학 공연장은 입학식, 학회 수여식 등 학내 행사에 국한되어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잊혀진 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

이에 각 대학들은 공연장 시설을 새롭게 확충하고 공연 기획의 수준을 높이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화여대 강당은 오는 10월 재개관을 앞둔 보수공사에 한창이며 건국대는 새천년관의 대공연장을 공연 기획사에 위탁·운영한다.

장과의 교류가 없다면 이와같은 노력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 대학 문화의 산실로

최근 대학 문화의 정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대학 문화가 지나는 참신함과 열정이 빛을 발하고 갈 길을 잃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대학 문화는 이대로 상업성과 대중성에 파묻혀 버릴



#### 문화 시설이 모자라

학내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간절히 목마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강의실도 모자라고 열람실도 부족하고 일한다면 끝이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문화적 욕구를 위한 시설이 아날까 생각한다. 학내에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은 캠퍼스 공연장이다.

강당을 비롯한 소극장, 노천극장 등의 시설에서 문화적 요구들을 수용해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열악한 시설과 관리 소홀로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현실이다.

외부 공연시설에 비해 무대 시설과 음향, 관객들을 위한 배려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들도 이용을 꺼리는데다 학내의 규모가 큰 행사들도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에서 치르고 있다.

#### 옛날의 금잔디 동산

하지만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의 공연장은 공연 및 예술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공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변변한 공연장이 없었기에 외국 의 정장급 연주자들도 자연스럽게 캠퍼스 공연장을 찾곤 했다.

1977년 떠오르는 신성이었던 대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이화여대 강당에서 처음으로 내한공연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당대를 주름잡던 파스타들의 내한 공연도 강당을 찾아야 했다.

비록 신촌역을 통과하는 교외선의 기적 소리와 열악한 무대 시설 때문에 공연자가 눈살을 찌푸렸을 지라도 새로운 문화의 교두보는 대학 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 캠퍼스 공연장이 새 옷을 입는다

## 목마른 캠퍼스 공연장에 문화예술의 단비를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6백주년 기념관에서는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도 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용수(한국문화재단 리틀엔젤스 기획·홍보부장) 부장은 "대학 공연장이 일정한 수준을 갖추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다면 대학 내부의 문화 수준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문화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의 변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획에서부터 운영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경영과 외부 공연

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 경쟁력을 가지는 캠퍼스 공연장은 대학문화의 첨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캠퍼스 공연장이 학생들의 문화 욕구를 받아내며 더불어 신·구·동·서양의 문화를 습득하고 새롭게 창조시키는 대학문화의 산실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최은진 기자

maenads@dreamwiz.com

### 연세대학교

1986년 8월 연세대학교 창립 1백주년을 기념하여 착공한 1백주년 기념관은 1988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연세대학교의 문화공간으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선 연세대학교는 건물의 완공과 더불어 동문출신의 매니지먼트 전문가를 영입했고 지금까지 12년간 나름의 노하우를 쌓아오고 있다.

전문인력의 영입은 1백주년 기념관이 연세대학교만의 공간이 아니라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적인 밑거름이 되었고, 공연과 행사를 유치하는 데 전문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연과 행사 기획에 있어서도 대학의 아마추어리즘에서 탈피, 전문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연세대학교 1백주년 기념관은 1년에 약 2백 20건 정도의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서 외부공연장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기르고 있다. 더불어 공연장과 함께 위치한 박물관은 행사시간보다 일찍 찾아온 사람들

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다리는 시간의 지루함을 배워준다.

그러나 학생들의 공연에도 대관료를 부과하여 사소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며 학교와 전문가 사이의 인식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외면할 수 없다. 또한, 외부공연의 유치때문에 학교가 시끄러워지고 주변의 교통이 혼잡해 지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의 해결책

## 대학 속 예술무대를 찾아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전문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1백주년 기념관의 성격보전이 살아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6백주년 기념관은 지난해 12월 완공된 이래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학내 문화공간으로 급성장하고 있

다.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사회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6백주년 기념관은 다양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팀을 상주시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약 8백여 규모의 대극장 새천년홀에서는 매주 각종 시상식, 공연예술을 선보이며 학내학생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대학로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의 장을 제공한다.

고 학문연구대학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성균관대는 매니지먼트, 기술, 행사관리 분야의 전문가 3명을 문화사업파트라는 별도의 팀으로 독립시켜 행사유치와 진행의 전문화를 단단계 발전시켰다. 문화사업파트는 기념관 내에 상주하며 유치공연의 사전 심사와 공연진행 사항 등의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로 인해 질 높은 공연과 행사진행의 유연함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의 후원이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는 부분과 아직 문화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자체 계획 행사보다는 순수 대관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들이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때문에 발전 가능성에 비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문제점 역시 꾸준한 노력으로 극복해 나갈 때 6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에서 새로운 문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 작가인식 랩 단식 학교안에서

#### 안티고네



서울캠 영문과 소모임 '영어연극반(D·E·D·C)'은 영문과 영상제를 맞아 소포클레스 원작의 '안티고네'를 공연한다. 학생들이 직접 연기·연출한 이 작품은 진정 아름답고 의미있는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는 31일·9월2일 2시, 5시 9월1일 4시, 7시 본관 2층 소극장에서. 문의 017-713-6120(장태수:영어연극반)

#### 토끼와 포수

서울캠 연극영상학부는 1학년 하계 정기 실습 공연으로 희곡 '토끼와 포수'를 공연한다. 그 동안 살고 닳은 새내기들의 기 한마당이 될 이번 공연은 박조열의 원작 희곡 작품을 학생들의 푹 튀는 세상 보기를 담아내어 유쾌한 웃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시, 7시. 본교 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260-8753

#### 학교밖에서

#### 통일강좌

국제 평화 인권 난민센터 (사)좋은벗들이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오던 통일강좌의 세번째 마당을 연다.

이번 강좌는 다음달 8일 '다시보는 북한사회·북한사람'이란 주제로 개강하며 수강신청은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다음달 1일에는 '김정일을 통해 보는 북한사회'라는 주제로 특강이 열리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서초동 정동회관 3층에서. 문의 587-8996

9월1일	김정일을 통해 보는 북한사회
9월8일~22일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율리
9월29일~10월22일	북한사람들의 사회
10월27일~11월24일	북한사람들의 경제
12월1일~22일	하나가 되기 위한 발걸음

#### 서울문화교실

지난 불강좌에서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던 '서울문화교실'이 다음달 새롭게 가을강좌를 연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던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에 쉽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수강, 오는 26일부터 9월2일까지. 선착순 방문접수. 문의 3703-8326

문화산책	9월5일~10월24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애니메이션 다시보기	9월8일~10월27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사고의 연장, 시진	9월6일~11월15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씨네클럽	9월7일~12월28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결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흔하다 흔한 간통사건에 불과한 '엄마의 외도'를 딸이 공개적으로 '실명고발'한 일은 우리 사회에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가족간에도 성립되는 세상이다.

김미영 편집부장 candy@mail.dongguk.ac.kr

### 메아리

#### 죄와 벌

▲ '우리 엄마를 고발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빠의 잘못이 아닌 엄마의 외도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약간의 분노감과 막막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드립니다. 엄마는 엄마의 책임도 다 버린 채 자신들마저 버리고 떠났습니다" 광주대 2학년에 재학중인 한 여대생이 인터넷상으로 공개한 이 글은 현지 파출소장인 어머니의 '불륜'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공직자와 무책임한 패륜엄마로 낙인 찍혀

버린 파출소장 김씨는 전례 없던 어머니 상을 남겨버렸다.

▲ 재벌기업 현대가 또다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계열사인 현대전자와 현대증권, 그리고 이차지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입 대금 대지급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지만 초점은 형제간의 분열에 맞춰지고 있다. 기업 간의 주식

매입 계약과 각서의 효력 발생을 두고 같은 재벌사끼리 소송을 낸다는 것도 정말 재미있는 구경거리이지만 이 또한 전례없던 현상 중 하나다. 경영권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몰고간 이번 현대 왕자들의 행위를 우리는 왕자의 난(?)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인가?

▲ 기업간의 계약을 주도한 이차지 현대증권 회장은 금융감독원은 조사결과 외환거래법과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 현

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고 중이다. 이 사건은 재벌의 밀실·독단권력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다름의 실질적인 주역 몽구, 몽헌, 몽준 세 왕자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우리 형제를 고발합니다'

소나기

내가 만일 의사라면...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선배의 사들을 원망하겠다. Why? 그동안 배부르게 잘 살았으니까  
 △허준 반만 닮아라  
 △그동안 저지른게 부끄러워 폐업 못하겠다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그 사람들이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잖는가?  
 △돈 열심히 벌기 위해 한 남의 배라도 더 가르겠다. 그대야 병원비 더벌지  
 △절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을 보라!  
 △서로간의 이익분쟁에만 급급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민중들을 생각하겠다  
 △의사나 의사가족이 아플땐 치료를 못 받게 하자  
 △의 : 의~약!  
 사 : 死  
 △사명감 없는 닥터는 닥터가 아니라 닥탈이다  
 △의사들이 이렇듯 목숨을 거는건 다 이유가 있는데...  
 △자살해야지, 뭐...  
 △의사라고 말 안한다  
 △남들이 파업해도 난 안한다. 불쌍한 환자를 도와줘야지 ~ 의사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의치는 의사가 됩시다.  
 생각없는 의사여러분  
 △아픈 녀름 다 치료해야지, 모...~\*;  
 △죽어가는 환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는 못할 것 같다.  
 △환자도 손님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가 만약 의사라면 안중근 의사처럼 폭탄도 던지고 총도 쏘고 다하겠다.  
 △가운을 투쟁복으로 갈아입고 동료들을 모아 청와대로 가겠다.  
 △동네 의원 의사라면 곳곳이 진료를 계속해 돈이나 많이 벌겠다!  
 △신상진 동지를 석방하라!!  
 △재빨리 자원 봉사 체제에 뛰어들겠다.  
 △보건 복지부 관계자님들!! 한번 아파 보세요

TEL: 22603491-2  
 (054) 7702058  
 FAX: 22791270  
 (054) 7702057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순두부찌개(1300) 닭꼬치구이(1500) 후랑크류음밥(1300)
화	회덮밥(1500) 하이라이스(1300) 오징어찌개(1500)
수	갈비탕(1500) 모듬볶음밥(1300) 어묵잡채(1300)
목	부대찌개(1300) 스파게티(1500) 연두부백반(1300)
금	생선까스(1300) 불고기백반(1500) 사골우거지국(1300)

(단위: 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돈육찌개(1300) 만두전골(3300) 카레돈까스(1500) 낙지볶음(3500)
화	양지탕(1500) 된장찌개백반(3000) 양송이볶음밥(1300) 삼겹살이채말이(3300)
수	참치우거지국(1300) 설렁탕(3300) 제육덮밥(1500) 해물덮밥(3500)
목	협성어찌개(1300) 닭도리탕(3300) 멸우비빔밥(1300) 삼치구이백반(3300)
금	만두국백반(1300) 날치알술밥(3300) 오징어볶음(1500) 오징어꼬치구이(3300)

(단위: 원)

또다른 동국, 사회문화 교육원

아직도 햇살이 따가운 늦여름. 방학중 캠퍼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수가 눈에 띄게 많고 있다. 학생들 중에는 사회문화교육원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원생들의 얘기를 듣고 여기에 근무하는 나로서 어찌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문화교육원은 98년에 설립하여 그 해 가을부터 정규과정을 모집해 현재 많은 지역일반인들이 수강하고 있고 학점은 현재 과목개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거듭 발전해 왔다. 평생학습, 성인교육, 순환교육으로 특히 현대인에게 이미 학교는 낯설지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들을 개설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며 지역사회와 우리 대학의 상호 협조체계를 형성시키는 훌륭한 교육기관과 대학홍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교내외 교통대책 마련해야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개학을 앞두고 다시 걱정이 되는 것은 등록금도, 시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안팎으로 끊임없이 다니는 자동차들이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은 교통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 교문 앞은 삼거리인데다 많은 차량이 다니지만 신호등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특히 금강에서 학교로 들어오는 도로는 급한 커브길이라서 차량이 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 길을 건너는 사람에게 매우 위험하다. 학교안도 위험하고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교내버스마냥 일정한 자리를 잡고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과 오가는 차량들, 지나가려는 학생들, 오토바이... 백삼탕

교내 매장의 비닐 봉투 판매에 대하여

오늘 공대 아리수 매장에서 캔 음료수 16개를 샀다. 부피가 무지 커서 혼자서는 들고 갈수 없는 부피였다. 그래서 봉투를 달라고 했다. 봉투는 판다고 했다. 30원씩이라고 해서 그냥 달라고 했다. 안중근길래 그럼 봉투 사용하고 반납하면 환불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뭐 다른 슈퍼나 백화점에 가도 종이 봉투만 환불이 되고 비닐봉투는 환불이 안된다고... 난 어이가 없어서. 그럼 종이 봉투를 쓰던가, 학교앞 편의점만 가도 봉투를 사게되면 환불이 가능하냐고 써붙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왜 환불이 안되냐고 항의를 했더니만 어딘가 전화를 하고는 가져오면 환불을 시켜준단다. 원래는 안되는데 따지니까 30원 안받는다라는 식으로. 한사람만 반납을 해줄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도 봉투를 사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봉투를 사 가지고 오는것 같다.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를 줄이려면 봉투를 팔기만 하는것보다 반납을 받아줘야 쓰레기

매년 축제 때만 지역민들과 약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년 내내 지역일반민들과 함께 학문을 통해 교류하면서 취업의 활로를 다소 터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다면 캠퍼스와 거리를 두면서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사회복 지시설과 강의시설을 병행하여 운영하면 학부학생들이 편리한 대로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물론 수익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끝으로 사회문화교육원도 동국인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계속 지역민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최현익(경주캠 사회문화교육원 교학과)

앞은 학교라고 하기보다는 광화문 네거리라 함이 옳을 것 같다.  
 등·하교시간에 교내에서 한번 차량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길을 건너려는 사람들은 한참을 기다리거나 아슬아슬한 곡예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조금씩 주의하고 양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당국이 이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학생들을 이런 위험에 방치시켜서는 안된다. 안전한 학교생활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선미(경주캠 사회복지학과)

가 줄지 않을까... 봉투가 필요하면 돈 주고라도 사게된다. 하지만 반납이 되지 않으면 그 봉투는 다시 쓰레기가 된다. 이것도 수익사업으로 하는것이면 100원 받아도 살 사람은 다시나간 100원 받지 왜 30원만 받는지 모르겠다. 거스름돈 70원으로 쓸데도 없는데. 하여튼 생협에서는 조치를 취해서 봉투 판매를 하더라도 반납을 받는다는 문구를 써 붙여야 할것이다. 쓰레기를 줄이면서 반납이 안된다면 이런 모순이 어디에 또 있을까? 제가 바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봉투사용 자제와 반납을 선전하고 실천하자는 것이다. 김중환(jhkim93@dgu.ac.kr)



책의 향기... 개강을 맞아 학생들로 붐비는 서점. 새롭게 단장한 다양한 서점처럼 학생들도 새로운 다짐을 ...

중국 해외봉사활동을 마치고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이들과 함께

“글을 배우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제가 봉사활동 기간 중 만용촌 소학교 어린이들에게 전한 퇴계 이황 선생님의 가르침이다. 아이들에게 무심코 전한 말이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정리하면서 그 가르침의 의미를 나 자신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 같아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스럽다. 그것은 내가 왜 배워야하는가? 무엇을 위해 배워야 하는가? 하는 배움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서로 공유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더불어 지식을 알고만 있었지 가지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들이었다.  
 봉사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며 함께 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지역이나 국가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물리적인 경계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이번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었다. 한 민족이라는 일체감과 서로가 가지고 있던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 사이의 공존의 필요 같은 것 말이다.  
 나는 이번 봉사활동기간 중에 한국사 교육을 맡았다. 수년을 배워온 우리의 역사였지만 막상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 지니 배우는 것과는 달리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수업을 준비하면서 또한 막상 중국에 가서 교육하는 동안에는 남달리 큰 보람을 가질 수 있었다. 타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고, 따라서 그만큼 민족적 역사 의식이 희박하다.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그들에게 민족

적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보람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다. 또한, 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정체성 또한 이전에 막연하던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서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결심까지도 가지게 되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의 고구려 유적지와 백두산, 두만강 등의 방문은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특히 두만강에서 강 너머의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는 이전에 실감하지 못했던 통일의 필요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자긍심이나 만리장성 등의 중국 문화탐방에서는 거대한 중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북경에서는 발전하는 중국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활동을 다 마친 후 중국에서 주고 온 사람보다 받고 온 사람이 더 커서 부끄럽지만 그곳에서 보고 배운 것이 너무 많기에 앞으로도 내가 지닌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삶을 살기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허승철(사과대 행정4)



동악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자존아~ 근 생활 잘해라. 입대 축하한다. -엽기마왕  
 △현정아~!! 늦었지만 너의 생일(8월 19일)을 다시 한번 축하한다! 사랑해!!  
 △음의 22돌째 및는 탄생일(8월11일)을 축하추카~!!  
 △미영아 생일축하해!! -쌈  
 △지났지만 현식오빠 생일축하해. -기관요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통신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8월처럼 살아요. -W.J.H  
 △중양위! 방학내내 삼반기 통삼강사 진행하느라 수고했어. -32총대

열심히합니다

△사범대! 개강 맞아 2학기도 신명나게 살아요. 보고싶었습니다. -엘레  
 △국어교육과 97학번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자... 사랑해... -pinkpig  
 △민족곡문 회곡분과 무적연극팀 파이팅!!! -망태가  
 △2학기 개강맞는 42대 동국문화회 식구들 모두 건강하게 힘내세요. -선배  
 △타똥집, 삼장, 삼순, 서하~ 모두 열심히 합시다. -i짱

그리고...

△년 방학 때 뭐 했니? 난 2000년 통일대 축전에 빠졌어! -가복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지혜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 기운내구,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것처럼 나도 지혜가 힘들 때 지혜 곁에 있어줄게. 사랑한다! -pisk20

은망글

축하합니다

△현정아! 남자친구랑 1년 됐으며? 축하하고 1년 파티 꼭 초대해라. 기다릴게. -주영이  
 △은정아! 1학기 성적 장학 이룬 것 축하한다. 2학기 때 더 열심히 해. -윤미가

수고하셨습니다

△중양 풍물패 불휘 회원님들, 하계 전수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불휘~ 캅 ~!! (주)쌈박 해철이가  
 △형님! 수능이 며칠 안 남았소. 서울에서 공부 잘 하고 있소?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성과 거두시오. -법정대 00 박진우  
 △수희! 너를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개강해서 만나자!  
 -너의 뒤에서

열심히합니다

△승민아! 1학기 때 최고의 방어를 기록한 것 축하(?)한다. 농담이고 2학기 때 술 조금 먹고 공부 열심히 한다는 약속 꼭 지켜라. -불교학부 동기 일동  
 △경희야! 아르바이트 끝났으며? 용돈 좀 벌었겠구나! 개강하면 한 톨 내는 거 잊지 않았겠지? 방학 끝날 날만 눈 빠지게 기다린다. -불똥여인

알립니다

△방학 기간 동안 저희 동현회에서 경남 하동으로 의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동현회

그리고...

△현주야!! 우리가 만난지도 벌써 백일이 지났구나. 2학기 때도 ^^ 알지? 사랑해!! -유재석  
 △지영이 누나! 아직도 포항인가요?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HGW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김치두부국(1300) 호박김치된장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낙지덮밥(1800)
화	미소시루(1300) 수제비국(1300) 돈까스(1500) 카레라이스(1500)
수	김치다시마국(1300) 짬뽕국(1300) 김치볶음밥(1600) 스파게티(1800)
목	팽이버섯된장국(1300) 콩나물국(1300) 오징어덮밥(1600) 참깨스테이크(1800)
금	오징어무국(1300) 무채국(1300) 멸이채볶음밥(1600) 전주비빔밥(1800)
토	따로국(1300) 쇠고기덮밥(1600) 냉국수(900)
일	미역국(1300) 하이라이스(1500)

(단위: 원)